東亞日報
朝刊 夕刊 本紙夕刊合十二面
發行兼編輯人 宋鎭禹
印刷人 金東燮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 光化門一九〇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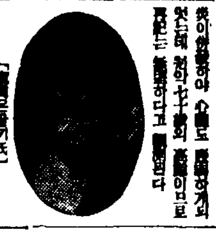
埃王家復辟問題 俄然現實問題化

유고及체크의反對明白으로

佛國政府는絕對反對

實現은不可能

英國政府側의見解



막심·골키氏 重態 再起는無望

에치오피아皇帝 外交團을接見

이든外相은用務로缺席豫定

크라본次官이出席

來二十六日 理事會招集

九日正式決定할듯

勅令十二件公布

平井黑田兩氏 正式起訴 鐵道疑獄에連坐

西南派速席會議 全軍에動員命令

湖南要街衡陽을占領

白氏가陣頭에 衡陽에서少憩

兩廣軍改名 首領의部署決定

華府會議以前의 大英海軍을實現

海相에就任한 호어前外相

地中海艦隊는撤收?

람프슨氏埃及 政情을奏上

商業的利益保護次 軍備充實을主張

日本貿易의勢力範圍擴大로

데일리·엑스프레스紙

孫科氏의漏洩로 蘇中密約이暴露

極秘裡軍事施設進行

(寫眞은孫科氏)

獨引無任所相 헛되히歸國

英政府의接見回避로

伯爵議員補選 八月一日執行

罷業善處要請

人民戰線內閣에

佛勞總同書記長

消息

東亞短評

第二次馬政計劃

軍馬의買上增加豫想

國體明徵具體案

大體의方針을遂決定

總經費七十八萬四千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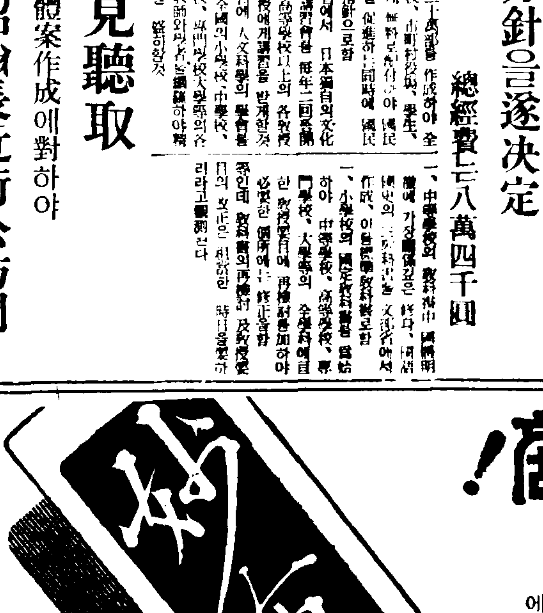
各方面의意見聽取

革新의具體案作成에對하야

藤沼翰長近衛公訪問

除去! 健康의敵!

疲勞 결림 痛症



妙布는
健康을保護하고獲得하며持續을爲한簡便하고도가장効果優秀한常備藥으로
자못高評이잇나
即健康의障害物인疲勞결림痛症其他에늘탑만치도奏効

主治 肩腰의결림 류마티스 打撲傷 神經痛 筋肉痛 젓멍울
効能 過勞痛 胸咽喉痛

定價 金二十錢 金三十錢 金五十錢 金一圓

全國到處各藥店에잇다

本舖 東京市麻布區飯倉町廿一番地 株式會社 渡邊輝綱藥房 振替東京四六〇七番

11—13

冷害뒤旱魃의徵兆 凶作豫想코暴騰

一般物價까지올라生活威脅

八、九年來처음現象

쌀값은웨오르나

최근 본사조사에 의하면 이에 대하야 현재에 한 공포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하면

【첫재】 작년과 재작년의 일본내지의 대풍작으로 현재 국내에 남어잇는 백미수량이 적으나 八월의 단경기(端境期)쪽 묵은쌀이 떠러지고 햇쌀이 나오는 시기에 가서는 쌀이 더욱 귀하여 질터이니 이때의 쌀값은 더욱 오를런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둘재】 하여간 현재 정부의 소유미로 남어잇는 六百만석을 내노아서 미가를 조절할 도리밧에 업으나 이것은 재작년의 묵은 쌀이라 내여놋는다 하더라도 일반이 환영을 받지못할 터이니 올라가는 쌀값을 부뜰어 맬 재조가 업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마라도 지금 풀어 내노으면 정말은 쌀이 귀할때인 단경기에서는 더욱 곤난일것이니 정부로서는 이것을 내노흘수도 업다.

【셋재】 그리고 一월이후로 일본내지의 동북지방의 냉해와 그다음 전국적으로 닥처온 냉해(冷害)와 한발의 중조로 금년흉작을 예상할수도 잇다하야 이에 쌀값은 멋없이 올나가고

【넷재】 이밧에 금년에는 보리의 대흉작과 좁쌀의관세인상으로 수입되지 안허서 대용식물이 적은 정도 한가지 원인이다.

이와같이 쌀값이 오르는동시에 일반물가도 올나가나 수요계급과 봉급생활자들의 눈앞에 닥처오는 마수는 각일각 가차워지고 잇다하야 이지음 탐구자들의 절실한대책이 긴급하다고 아니할수 업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러케 한밧이 심한정도도 아니오 금후의 천후가 어떠케될지 예측할수없으므로 뭇없이 오르는 쌀값으로 금년흉풍을 예측함은 또한부보한 일이라할것이다.

暴騰하는物價로 動搖하는勞働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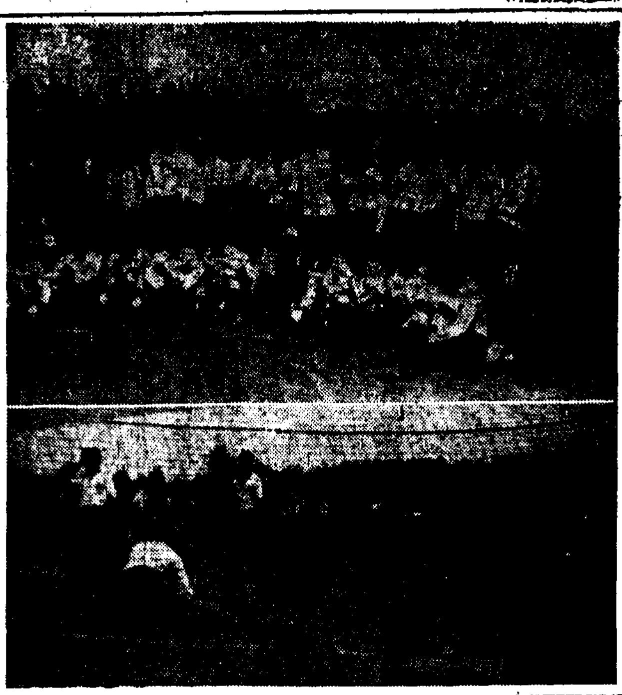
工場主에게賃金增額을要求

龍山署는趨移를嚴戒

오르기만하고 내릴줄모르는 쌀값을 위시하야 일반물가가 고등하는 반면에 일반소비대중의 생활은 이루다 말할수업는 현상이어니와 그중에도 더욱심한것은 一반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일것이다.

요사이 용산경찰서 관내에 잇는 九十五개소 공장 三千인이 넘는 하는공장에 근무하는 만여명의 직공들은 시세로 말하면 五十전에 불과하는 일급으로 근근히 지내오든바 일반물가와 쌀값이 이와같이 비싸지매 일급에 대하여서는 하루의 임금이 떠어서 호구지책만이라도 도저히 계속해나갈수없어서 각기공장주에게 임금인상요구를 하는사람이 합해에도 수十명이 될뿐더러 한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에 대하야 공장주측에서는 앞으로 닥처오는 어려운 공장에서 계일도남을 당하는 형편이요 또는 공장주로서도 일반원료값이 놉아저 지금 형편으로는 도저히 임금을 올릴수 없다고 변명하는 일방 혹시나 이것이 원인이되어 무슨 불상사나 일지나 안을가하야 진정하는 직공들을 극력무마하고잇다하며 이와동시에 용산경찰서 고등계에서는 이문제에 대하야 직공들의 동정과 생활상태를 극력조사하는 일방 양편을 통하야 무마중이다.



◇珍客 佛鑑籠球隊來訪 【上】普專과의戰前記念 【下】競技場面

五卅暴動日에 落村이騷亂

人質、食糧奪去多數

【도문】 五월 三十일 간도 五·三〇 폭동기념일 전후로 간도 중요도시는 평온무사하엿으나 지방각부락은 공산당과 반만군의 약탈인질로 매우 소우하엿다는바 그렁건은 다음과 같다고한다.

지난 二十八일 밤 十一시경에 무도구(?)서북방 六리지점 장인강동의공(長仁江東溝)에 무장공산당 三十여명이 습래하야 주민 허성진(許成振)외 九명을 납거하는 동시에 소 十두와 식량을 약탈하여가지고 안도현방면으로 도주하엿다한다.

동일동시에 춘양향소리수구(春陽鄕小利樹溝)서방 二리지점 김경수(金京洙)에게 무장한 병정혼합부대 二十여명이 침입하야 현금 十원과 의복 식량등 다수를 약탈하여갓다고한다.

지난一일 오전영시 二十분경에 도가선 춘양역(春陽驛)서방 二十키로지점 환산양행 목재채벌고력바락크(丸山洋行 木材採伐勞力小屋)에 무장병정혼합부대 三十여명이 습래하야 백八표 소끔二十근 기타 의복수건과 현금 二원을 약탈도주하엿다한다.

五월卅일 경도선 명월구(京圖線明月溝)남방四키로 지점신흥부락(新興部落)에 무장반만군 十五명이 습래하야 동지주민 七명을 납거하고 식량등을 탈취하고 四로하사방면으로 도주하엿다는 정보를받고 당지자위단원이 추격하야 납치자중 六명을 탈환하엿다한다.

(...)을 남거하고 탈주하므로 소지의 (...) 좌대대부(左大隊部)에 (...)시 시킨후 공안국 (...) 주민 김동진(金東鎭) 외 二명을 남거하고 식량을 강탈한후 안도현방면으로 도주하엿다한다.

연길현 성부수 목촌경장(木村警長)이하 十명이지난 二일오전八시에 삼도만 동구부락(三道灣東溝部落)을 지도하기위하야 동지를 향하던 도중요렵(...)에이르자계통이분명치못한 병정혼합부대 一백여명에 포위되어 장시간교전하야 적을격퇴하고 동일하오六시에 경장이하 六명반이 소명월구(小明月溝)에 도착되고 四명은 행방불명 이라는바 이소식을 접한八도구군경이 즉시 현장으로 급행하엿다고 한다.

지난一일 오전一시경에 명월구(明月溝)남방 二리지점 남유수하자 대반동부락(大盤溝部落)에 무장공산당 五十여명이 습래하야 당지주민 이종무(李宗(?))(...)

今明年·百萬圓豫算으로 二次水道擴張工事

新設、清凉、阿峴、老姑山、東幕、下水溢、新孔德、龍山、步兵營、普光、漢江、西氷庫町에

編入住民의陳情不絶

지난 四월 경성부 구역이확장된 이래신편입 구역(新編入區域)의 주민들이 부당국에 대하야가장 맹렬히 요구하는것은 수도시설(水道施設)를 하로속히 하여달라는것이라는바 최근 부 수도과(水道課)에는 매일 신편입구역의 각동리 주민대표들이 그에대한진정을하고잇다 한다. 이에대하야 부수도과에서도 될수잇으면 부민의 요구를 드러주기 위하야수개월전부터 신편입구역의 실제수도사용인원을 조사중 이제엽 겨우 그조사는 끝낫다 한다.

그러나 신편입 구역중 그지역이 너무나 광대하여서 현재뚝섬(纛島)노량진(鷺梁津)양수원지의 매일최고급수량 四萬五千입방메돌로서는 도저히그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드러줄수없고 오는 소화十四년 광장리(廣壯里)주도의 준공후에나 비로소 그들의 요구를 드러주게될 형편에잇다는데 그러대서 그대로 아무것에도 손을 대지안할수는없고 또 광장리상수도가 준공되면 현재사용하는 송수관(送水管)으로는 송수가 불가능할것이므로 금년、명년에 금하야 제一차 수도 확장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기로 되엇다 한다. 그 확장공사의 범위는 신편입구역으로써 수도시설이 시급한 곳에 수도를 시설하며 또는 송수관의 증설 혹은 송수관을개량하는것등이라는데 그경비는 약百萬원을 계상하고잇다 한다.

신편입구역으로써 제一차적으로 수도를 신설 혹은 증설 하기로 된곳은 신설정(新設町)에서 청량정(清凉町)아현정(阿峴町) 에서 노고산정(老姑山町) 동막정(東幕町)하수일정(下水溢町) 신공덕정(新孔德町) 용산、보병영(步兵營)에서 보광정(普光町) 한강정(漢江町)기병영(騎兵營)에서 서빙고정 (西氷庫町)등 이며 송수관을 증설개량 할곳은 대현리배수지(大峴里配水池)에서 부내에 배치는각 간선(幹線) 송수관을 비롯하야 각지선(支線) 송수관등이며 또총독부(總督府)앞에서 효자동(孝子洞)창경원(昌慶苑)앞에서 동소문(東小門)등에 배치서는 송수관을 증설하기로 되엇다 한다.

三萬CE青年動員 禁酒斷煙宣傳

오는廿二、廿三일전조선적으로

삐라配付、旗行列、禁酒村建設

『百가지해독이 잇을지언정 한가지 이익이 없는 술(酒)담배 마시지말자!』 하는표어로써 해마다 계속되는 전조선 면려회(勉勵會) 주최의 금주(禁酒)운동은 금년으로 제七회를마지하야 오는二十二、二十三양일(五월四、五일) 양일간 전조선의 면려회총동원으로 대대적금주운동을 일으키라 한다.

그의 운동으로는 금주운동에관한 『포스타』와 『삐라』六、七十만장을 만드러 전조선에 산포하는 동시에 각처에서 기행렬을 거행하리라한다.

이와동시에 각처예수교례배당에서 남녀청년회주최의 금주웅변대회(禁酒雄辯大會)를개최하리라고한다.

웅변회에는 면려회련합회로부터 상품을 보내어 一、二、三등의 현상을 하리라한다.

그리고 동면합회에서 각도시와 향촌에 금주회를 조직하고 금주촌(禁酒村)을 건설할계획을 세우고 크게활동을 하는중이라한다.

금주삐라와 『포스타』는 지방단체에 무료로배부하되 송료는요한다하며 금주회와 조직의자세한 내용은 부내종로(鍾路)二정목九十一번지기독청년면려회조선련합회로 문의하기를 바란다고한다.

修業年限 二年으로 明年에는十八學校

二十錢의月謝金을徵收키로

府內簡易校制確定

경성부 학무과(學務課)에서 부내에 산재한 무산아동(無產兒童)의문맹(文盲)을 타파하야주기 위하야 명년도부터는 현재 구부내 十八공보교에 잇는 一년제의 강습소(講習所)라는것의 내용을 一층 강화하야 二년제의 공보교 부설간이학교(公普校附設簡易學校)라는것을 만드러볼방침을 세우고 잇다는것은 기보한바어니와 동계획을세운 학무과에서는 이미 그 인가신청을 총독부에 제출하엿은바 그인가도 쉬이 나오게 되엇으므로 방금 그에대한 구체안을작성중이라한다.

그내용을 알어보면 현재 十八공보교 강습소에 수용되어 잇는 아동은 명년도에는 二하년하급九반을 만드러가지고 그곳에 수용하고 명년부에는 새로히 신입생 수용아동을 九반만드러 약 七百명의아동을 수용하야보기로 되엇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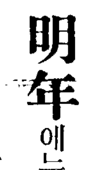
그런데 그二년제 간이학교는 二년동안에 초등학교의 四년정도의 과목을 수업시키기로되엇다는바 그아동들에게서는 수업료로써 약二十전가량을 징수할방침이라한다.

그리고 그경비는 약一萬八千원가량을 계상하고잇다는데 국고보조가 매반에 四百五十원씩은 잇을것이므로 금후 경영하야가는데 하등의 곤난은 업을것이라한다.

뻐스차장이 重傷

六일 오전七시三十분경 경성역에서 봉래정(蓬萊町)으로 향하는 경전 뻐스(京二〇七四)호가 봉래교정류장에 이르게될쯤에 몰연 그뻐스차장인 조금희(趙今姬)(當十七)이 뛰어내리다가 전기뻐스에 깔리게되어 중상을 당하게되엇다 즉시 운전수가 전기 조금희를 적십자(赤十字)병원에 입원케 하야 응급치료를 밧게 하엿다는데 전치하기에는 四十일간을 요하게 되리라고 한다.

海外生活卄年만에 來京한李裕弼氏



해외에 망명생활 二十여년을한 이유필(李裕弼)씨는 그동안 신의주형무소에서 형기를마치고 약三개월전에 출감하엿는데 작六일에 二十一년만에 경성으로 처음찻어왓다고한다. (사진은이유필씨)

求禮公普校의 新築期成會

【구례】 구례공립보통학교(求禮公普)의 교사퇴락으로 五백여동의 안도가 염려된다함은 누사보도한바어니와 지난 三일하오三시경에 동교강당에서 동창회원과 학부형 및 유지련합회를 열고 이에대한 방책을 협의한결과 교사신축기성회(校舍新築期成會)의조직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자 즉석에서 마산면 방천리(馬山面 方川里)김수진(金守鎭)씨의 一천五백원의 다액을 자진의연함에 장내는 감격의 분위기에 싸혀 너도나도하고내노흔금액이三천六백원의 거액에 달하야 실로 예기 이상의 호성적을 엇엇는바 이중에는교장(校長)도야(稻野)씨의 一백원과 봉동리(鳳東里)김덕현(金德賢)씨의 회갑연비를 절약하고 一백五十원을 의연한것은 이채를 띄엇으며 당선된임원은 다음과같다.

▲會長 金鎭奎 ▲副會長 高錫(?) ▲幹事 金漢模、文彩會 ▲委員 高光秀外五人

城北町山火

六일 오후五시경 성북정(城北町)산二十二번지 一호 동리에서 약 四정가량 떠러진 국유림에서 돌연 불이 이러나 一시 그기세는자못 맹렬하엿으나 동민의 노력으로 약 一百평가량을 태우고 二十五분경에 진화되엇다 한다. 방화원인은방금소관동대문서에서조사중이라는데 담배불이 떠러저그와같이 산불로된것같다 한다.

그날그날

(陽)六月七日(日曜日) (陰)四月十八日(庚申)

日出前五·一一 日入後七·五一 月出前九·四三 月入後六·三八

滿潮 仁川前(?) 後六·四四 鎭南浦前(?) 後(?) 釜山前(?) 後(?)

오늘의天氣

개엿다흐렷다

日曜講話

▲覺皇寺 (낮) 和光同塵 朴聖權氏

▲復活社講堂 (午前十時半) 陛下의狗 金敎臣氏

▲朝鮮中央基督青年會 (午後三時 基督教에서 무엇을 얻으려는가) 元翊常氏

▲中央教會 (낮)「어떠한부자와나사로」 金永燮氏 (밤) 罪의價値 李東激氏

▲阿峴教會 (낮) 絶對의信賴 裵亨湜氏 (밤) 保惠師의有益 金鎭浩氏

▲水標教會 (낮) 資格 申公淑氏 (밤) 사랑 具滋玉氏

▲貞洞禮拜堂 (낮) 生者不滅 金應泰氏 (밤) 예수第一主義 趙信一氏

▲石橋教會 (낮) 反基督會者를戒함 朴淵瑞氏 (밤) 어린이主日祝賀禮拜 (幼年主日學校主催)

▲鍾川里教會 (낮) 人生과宗教 金仁泳氏 (밤) 未定 金海龍氏

▲南大門外教會 (낮) 反基督會者를警戒함 (밤) 勉勵會獻身禮拜 彼得氏

"市街地建築取締"解說 【三】

建物高는얼마나 採光과防火는이러케

第三 건축은 어떠한구조를 요하는가?

건축물의 정부는보안위생상 중대한관계가 잇으므로 그부지、구조、설비등에대하야 엄중한 제한이되어잇는데 그대요는

【甲】敷地에關한制限

一、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부지면적에대하야 十분의七 비례를 넘지안흐면 안된다그리나 지정된지역중의 거주지역은 十분의六、상업지역은 十분의八도되어잇다。그러나 다음의경우에는 차한에부재。

(一)보난지대로서 폭이 六메돌이상으로 그총회가 二十메돌이상의 길에접하야 면적이천평방메돌이하의것。

(二) 부지의주위三분의二이상 전가로의 폭을가진길에 접한것

(三) 공원、광장등에 접하야 전각호에 준하게된것

二、건축물의부지는 특히 도지사의허가를 받은경우이외는 인접도로경계의 로면보다 놉게하고 건축물의 마루밑의 지반면도수위의지반면보다 놉게할것

三、씨레기등속으로 봉운 부지는 그지반면으로부터 二十六메돌이상의 흙과 돌로 채우되 부지가 습하다면 다시 터를 다질것

四、부지에는 빗물과 하수를 배설 처리할 적당할 설비를할것

【乙】便所井戶等의制限

一、거주에 공한 건축물의 부지에는 반듯이 변소를두되 그구조는 변통과 그주위를 내수재(耐水材)로만들고 급취구(汲取口)는 파리를 장치를하야 지반면으로부터 ○、一메돌 놉게하고 또긴에 변치안토록하며 창에는 철망기타 방충(防蟲)설비를 요함

二、변소또는 축사(畜舍)로 부터 나오는 더러운것의 모아두는것은 내수재로 만들어 뚜께를덮되 도지사의 승인하는 오수처리탕크로 만들어 둔때는 그것을 하수도로 배출할수잇음

三、우물과 펴내는 변소 또는 우물탕크와의 거리는 五메돌이상으로하되 우물쪽은 건수를마을구조를 설비하고 정통(井筒)혹은 지반으로부터 높이 二○、六메돌이상되게하고 뚜껑를 덮을것。

四、긴에 연한지붕、노대등에는 적당한 홈을만들야 하수구로빼것。

五、목욕간이나 개숫물버리는장소는 지반하수구나 물고이는데를 내수재로 장만할것。

(丙) 主要構造의制限

一、건물의 기초는 동해(凍害)를 피하게 구조할것。

二、건물의 주요한 기둥은 방부(防腐)방법을 안하거든 콘크리(?)시으로하고 또 기둥밑은 토대(土臺)를 쓸것。

三、건물의 벽체가 지접흙에벗는때는 그부분은 내수재료로할것

四、주요구조와 재가운、벽돌、『콩크리트』등의 목조벽에 접한 부분은 방부방법을 쓸것。

五、건축의 가부분은 그 ○의 무게의 지주(?)를 실을수있도록 구조한것。

【丁】高에關한制限

一、연와조、석조、목조의건축물은 높이十三메돌、四十二尺(?) 석가래높이 九메돌(二十尺)를 목골조건축물은 높이 八메돌 석가래높이五메돌을 넘지못하고 고층건물은 철근 콩크리트조에 한하게된다。그러나 건축상의 각부분의높은그부분으로부터 외각교의 수평거리의 一배반을넘지못한다 또 그앞교폭의一배반에 八메돌을 더한것을 최고한도로함。

二、특히 도지사의허가를 받지안흔 지면에에하야도 높이의제한이잇다。즉주거지역안은二十메돌 거티지역은 三十메돌을넷넘는다。

三、만일 부지가 길목이다른 몰이상의길에 접한경우는 폭이적은길은 큰길과같이 취급한다。

四、길폭의 경계선이 건축선과一치치아니한 경우는 길폭의규정은 건축선으로써 경계선(境界線)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五、연돌、통식(棟飾)피뢰침(避雷針)기간(旗竿)등의상의고로출하는것의 높이는 건축의 높이에 계산치아니하나 장식탑(裝飾塔)전망탑(展望塔)옥상(屋上)층강기탑(昇降機塔)수조(水槽)등의 옥상돌출부는 그부분의 높이 五분의一장(?)을 건물의 높이에 가한다。

그런데 그계산치아니하는 부분、즉 五분의四면적의합계가 건축총면적의 十분의一이내라야한다。

六、사사(社寺)또는 공업용 건축물、연돌、전망탑、기중기(起重機)수조(水槽)가조(架槽)전주(電柱)등으로서 도지사가 지장없다고 인정하면 제한규정에 구해없이 허가할수잇다。

七、특종지점(特種地帶)에잇는건축물의 높이와 도로폭에 대하야는 다음과같은 특례를 인정한다。

첫재、공원、광장、강이나바다에 접한때는 그마진편길의 거리의 높이의 한도(限度)로 한다。

둘재、전면도로(前面道路)의 마진편에 공원、광장、강이나바다등이 잇슬때는 그마진편까지의 거리와 전면도로의 폭의 화(和)를 초과치안는 한도에서 규정 제六十九조 제一항、소위 도로수평거리(道路水平距離)의 一배반(一倍半)를 一배반까지 제一백四조의 지거주역에 잇어서는 一백면분의一을 二배까지 할수잇다。

셋재、지반면(地盤面)이 전면도로의 중앙으로부터 ○、六미돌이상 높을때는 지반면의 높이에서 ○、六미돌을 감한높이의 二분지一의 위치로써 전면도로의 중앙이라 보는것이다。

넷재、건축의 종단(終端)에 위치를 두게될때는 그도로 폭의一배四분의一에 상당한 폭을가진 도로에 접한것으로 간주한다。

八、그리고 특히 필요잇는 경우에 도지사는 구역을 정하야 건물의 최고최저의 높이의 한도를 정할수잇는데 아직 그 구역은 지정하여 잇지안타。

【戊】換氣、採光에關한制限

一、천정의 높이는 二미돌이상이 아니면 안된다。그러나 온돌은 一、八미돌까지 낫게할수잇다。

二、마루의 높이는 방습설비(防濕設備)가 잇는경우에는○、四五미돌이상이 아니면 안된다。

三、나무마루는 마루밑에 환기설비(換氣設備)를 요한다。

四、지하실의 거실(居室)은 마루와마루밑을 내수재료(耐水材料)로 축조하고 벽은 방습설비를 요한다。

五、창과 그밖에 채광면(採光面)의유효면적(有効面積)은 방면적의 十분의一이상으로하고 적당한 환기설비가 없으면안된다

六、난간등 방의채광과 환기를방해하는것은 위생상 특별한필요가잇다고 인정하면 도지사는채광면 또는 환기설비를명한다。

【己】防火避亂에關한制限

一、방의창은 쇠창살、철망을 부치는경우에는 피란설비가 잇거나또는 특히 허가받는이외는 피란장치를 할것

二、건축물의 출입구와 창등은개폐할때에 건축선으로 부터판망대(?)돌출(突出)되지 (...)등의 옥상에 만드는 공작물은 높이가 四미돌、그면적이 十평방미돌을 넘는것은 불복지안는 재료로 만들거나 또는 싸먹어서 만들지안흐면 안된다。

三、계단(階段)혹은 특수용도에 자용할것외에는 다음의 제한에의하지안흐면 아니된다。

가、계단의 폭은 안으로○、七五미돌이상

나、축상(蹴上)높이는○、二三미돌이하

다、반디디는폭은○、一五미돌이상

라、높이四、五미돌을 넘는계단은 높이四、五미돌이내 마다 반디디는데를 설치할것

마、도데는 계단 하부에 맨들고 단수(段數)는 四이하

바、승구(昇口)와 강구(降口)에는 반닷는것을 맨들것

사、목조건축물에는 三층이상에 二三〇평방미이상의 거실면적을가진것은 각계마다 二이상의 계단을 설할것

아、피란계단은 폭원○、六미이상으로건물에접하지아니한부분에는 부란간(欄干)을 설하고또 지접의지에 접할것

四、직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서 잇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모르다르』塗、漆喰의 등은 도지사가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때에 한하야 쓸것이다 기와집중은인재와의유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와를 야지에 긴결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사사(社寺)、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다실(茶室)또는 사아(四阿)의 집웅으로서 토지의 상황에의하야 지장이없다고 인정한때는 특예의것을 인정할수잇다

五、건축면적이 六百六十평방미돌(二百坪)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축면적六百六十평방미돌이내마다 방화벽(防火壁)을 만들지안흐면 안된다。다만

(一)외벽、마루、천마、기둥계단이 내화구조(耐火構造)인경우

(二)불연재료(不燃材料)로한 (...)경우

(三) 특별한 사유에 의하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경우에는 방화벽을 만들지안해도 관계없다。

六、방화벽의구조는

가、내화구조(耐火構造)로할것 단 목조 또는 목골조(木骨造)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鐵骨)로 방화벽을 만들어야한다。

나、양단은 외벽에 달하지안흐면 안된다。 단 목조건축물은 근접하는 목부(木部)로부터 ○、三미돌이상 외로 나오지안흐면 안된다。

다、상단은 ○、四五미돌 이상 오외로 나오게할것。단 내화구조(耐火構造)의 경우는 그필요가없다。

라、二、요벽구(四壁(?))를만들경우는 그부분의 벽의두께는 연와조(煉瓦造)석조에 잇어서는○、二二미돌 철근 콩크리트조에 잇어서는 ○、一一미돌이상으로 하잔흐면 안된다。

七、온돌의구조는

가、마루의 요처상부(腰處上部)에잇는 목부(木部)는 연도(煙道)○、一五미돌이상의 간격를둘것。

나、마루는 연기라든지 까스를 이심내에 새여들지 안토록 짓지안흐면 안된다。

다、부엌 아궁은 불연재료(不燃材料)로써 덥지안흐면안된다

라、부엌아궁의 주위는○、四미이상을 점토(粘土)의유 또는 나속 혹은 유리이외의 불연재료로써 축조하지 안흐면안된다

八、벽에붙은 난로 및 고정『페치카』의 구조로는

가、목조 또는 목골조(木骨造)의 건물의 벽에 붙은 난로는철근콘크리트나 철골조로 하지안흐면 안된다。

나、벽에붙은 난로의 노상(爐床)또는 고정 페치카는 견고한기초위에 짓고 목조건물이면 상부는 쑥 나오게 하지 안흐면 안된다。

다、고정『페치카』또는신탄(薪炭)을 사용하는 벽에붙은 난로는 아궁의 아래 및앞 ○、三미장、각 ○、一五미이상의 부분의 마루를 그타 벽에붙은난로는 아궁의 아래 부분의 마루를 불연재료로짓고또그아래는○、二四미 이내에는 연재재료(鐵板材料)를 사이지안흐면 안된다。

라、연돌이 집안에 잇는부분은 철근 콩크리트 또는 연와(煉瓦)의 유료로써 짓고 외벽의 두께는 철근콩크리트에 잇어서는 ○、一五미 이상기타는○、二二미 이상으로 하고 또연도(煙道)에는 토관(土管)의 삽입 또는 세멘트 모르타르를 바르지안흐면안된다。

마、연도(煙道)의 출구이 百二十도이내의 경우에는 그길목부에는 소제구(掃除口)를 두지안흐면 안된다。

三好クリーム

살결을곱게하는근본적으로미용크림

化粧下에面刀後에

朝夕으로洗手後에

발르면 살이고아집니다

三好白粉 三好水白粉 三好化粧水 三好ペルツ水 三好香油 三好香水 三好ポマード 三好口紅 コリア石鹸 (코리아) 파라마운트石鹸 其外本社製品五十餘種

京城府昭和通一五九 三好化粧品株式會社 電光一七二七 振替京城一五九五八

社說

低金利時代의 現象

팔레스치나擾騷

兩族血戰의 遠因은

英國의 朝三暮四政策

家族制度强化로

出産設備擴大

産室設備를 完美케

【蘇聯의 憲法改正副産物】

蘇聯陸相演說

赤衛軍兵士를 煽動

北極航路에

八新線計劃

全蘇農業博覽會

北樺太文化施設

納稅者樂園

財產稅二厘二毛

中繼放送

日本과 國際情勢 【一】

赤池濃氏

反對 / 重要 / 兩立 / 論議

漫畫世界

今年正月 그림展覽會

內外短信

米國 깽取締

新刊紹介

▲가톨릭少年 六月號

第一劇場

殺人街

影(그림자)

五百年後의 世界

새벽의 爆擊

朝鮮劇場

優美館

伊達姿元祿頭巾

大谿谷의 呼聲

征空重爆擊

無電非常線

副業に 紙袋의 製造 江商工業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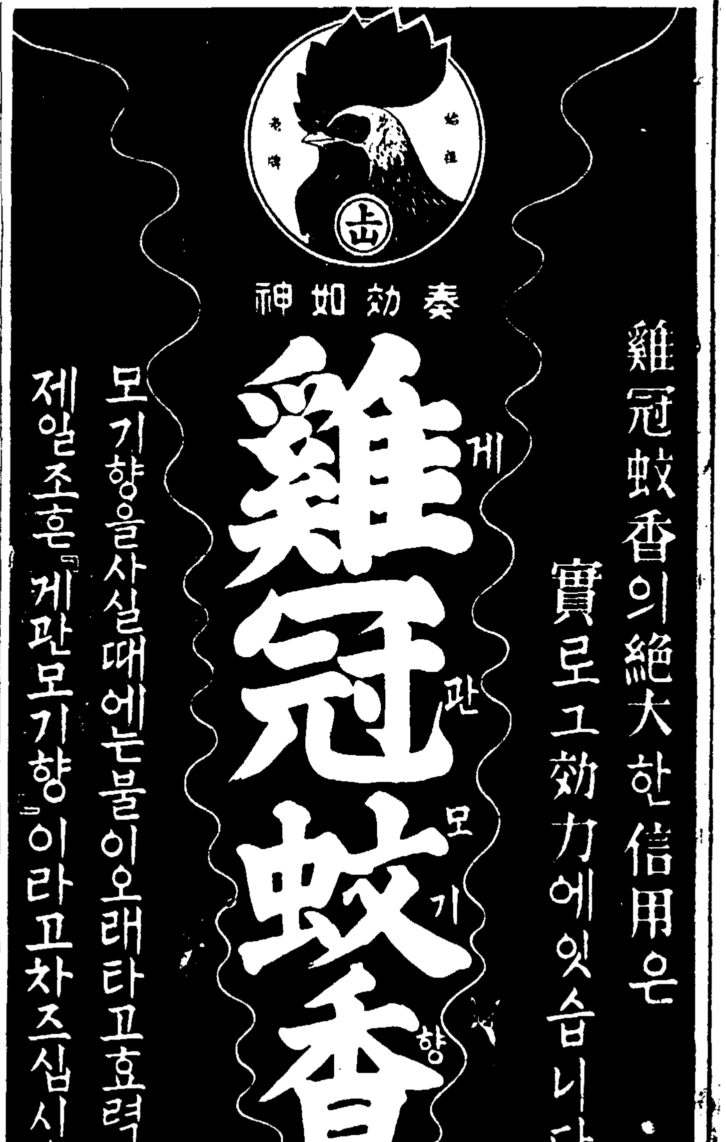
養蜂 カタログ進呈

東亞日報購讀請求所 昌信町 任景俊

東亞日報購讀請求所 金剛商會

고무신은 거북선 京城東大門外

東亞日報購讀請求所 昌信町八九 順昌商會



地方論壇

通信機關施設을促함

우리 安城은 … 一般이 周知함과 如히 京畿道의 南端에 位置한 忠南北三郡과 接壤하야 四通五達하는 本郡의 中央地點으로 全戶數 二千餘戶에 一萬餘人口가 잇고 人家가 櫛比하야 …

宗中財讓與承諾하라고

三次나亂打하고監禁

高敞茂長駐在所兩巡査所爲

被害者는瀆職、傷害로告訴

【고창】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上下面) 황치원(黃致元)은 … 종중 재산 … 양도를 승낙하라고 … 무장주재소 … 순사 … 삼차나 난타하고 감금하얏다고 …

이에 황용태는 종중토지를 … 황치원에게 … 전후 三차나 몹시 구타를 당하고 三주일간 진단서를 내여 … 다시 三주일간 진단서를 내여 … 고소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등 …

被告된兩巡査

本署로轉勤

그리하야 五월十일경에 고소당한 두순사는 본서로 전임시키고 … 五월二十九일에 상하면 주재소를 … 황치원은 … 종중토지를 …

宗中代表某氏談

종중이 …

湯原署長談

사실에 … 서조 …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잇습니다.

全州師範校

五日에開校

全生徒가三百餘名

【전주】 그동안 개교준비중이든 전주사범학교(全州師範學校)는 지난六월一일로 개교하게 되엿는데 … 경성과(京城科) 二백四十一명 … 특과 … 九十九명이라하며 교장은 전 대구고보(大邱高普) 교장이든 소림(小林)씨 … 대구고보 교유이든 … 오전九시부터 동교식당에서 성대한 개교식을 거행하엿다한다. 이날부터 교수를 받는 …

白馬江의 釣龍台

父母拒絶로結婚못하고

愛子업은채投海自殺

"그와못살바에는차라리이몸이"

釜山幼兒溺死屍事件

愛人이兩班인까닭에

【부산】 도회지라는 복잡하고 고난심한 어두운 그늘에서 직업여성으로 카페에 여급! 그리하야 미묘의 남자와 사랑의 열매까지맷어 부모의 승낙을 구하엿으나 여급이라는 천한 인간 … 생활로 인하야 그들의 … 전제 … 받다 못해 부생 …

던차에 지난五월 … 에 전신이 모두 부패한 여자와 외사체가 … 남부민정(南富民町) 방파제 … 기부인 해안에 포착하엿으나 형체를 분간할도리가 없어 경찰도 그신분조사 … 가진 수상서 … 형사는 … 면서 외로의 … 에 열중하던 나머지 … 에 보수정 … 카페 … 에 가서 사한잔을 마시고 그곳의 … 에게 … 유아의 … 사진을 내노코 이 아이의 임자를 알겟느냐고 …

가무에서 살키동 … 조수 카페 … 의 여급생활을 하면서 한남자와 상애가 되어 … 의 二녀 천소생(千小生)이라는 … 부평정(富平町)… 카페 … 에 여급생활을 하면서 … 남자 저사나이에게 …

이리하야 결혼코져 부모의 반대 … 승낙을 하엿스나 …

그리하야 그여자는 五월十八일에 등에아이를 업고서 종적을감추어버렷든것이다.

… 세상의 전세를 저주하며 왁고한 부모의 간섭에 … 결혼을 승인하지 아니 하엿다 …

慶南의今年麥作

比昨年二割減少

예상고가 백十六만여석으로

丙子麥凶은이만程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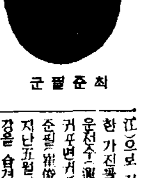
【부산】 경남도의 소화十一년도 맥작수확예상고는 지난五일 다음과같이 발표되엿는데 대맥一四만七천七백四十二정보에 수확고가 三十七만백九十八석 소맥 … 一만一천二백十六정보에 수확고가 八만二천五백八十九석 나맥 … 로 합계 … 전년에 비하면 대맥二할 … 소맥一할九부 … 감소되어 총 … 년도 면하엿다고 한다.

反滿軍拉去殺害로

骸骨로歸還한青年

移住同胞의家族들이雲集하야

龜浦驛頭는淚海化



최준필군

【구포】 나도 남과같이 잘살아보자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작년三월초순에 친지들이 만히살고잇는 이역 만주 목단강(牡丹江)… 의 치적 … 만주로보낸 부모들은 …

… 한 가진 행렬을 … 운전수(運轉手) … 구포면 구포리(龜浦面龜浦里) 최준필(崔俊弼)(…)이라는 청년은 지난五월二十八일 … 반만군이 목단 … 강을 습격하야 수十명의 납거(拉去) … 장으로 변하야 一대호곡장을 이루엇다한다.

報恩麥作不良

【보은】 보은지방(報恩地方)에는 지난겨울에 혹독한 추위로 밥곡이 …

釜山中國領館에

醉客侵入暴行

領事는警察에抗議

【부산】 지난 四일오후 五시에 부산부 초량정에잇는 중국영사관 문전에서 술취한 두사람(金石岳)(朴相浩)(假名)이 영사관 전달실 … 가제지를하려고 … 이 … 폭행자를 엄중히 처벌 … 하엿다.

水產物品陳列

【통영】 경남통영항(統營港)은 조선의 수산항구으로서 각종수산물이 풍부하야 연산액이 七백만원 …

產組理事等에

辭職을勸告

歸結如何가頗注目

【대구】 한때 세인의 이목을 놀내이든 경상북도산업조합(產業組合)사건은 五월十五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관계자五명에게 벌금三十원과 중역六개월에 二년간집행유예의 판결을 한것으로 피고들은 전부 이판결에 복종하고 대구복심법원에 공소하여 오는八일에 복심공판이 개정된다하는 …

安城에도麥凶

【죽산】 자연기후에 八十년래 유례없는 흉한 … 전조선각지가 다 가치 당한터이며 따라서 조선농가의 주요한 부식물중에 하나인 보리가 대반이나 얼어죽엇으므로 전조선농가에서는 … 잘 되지못하는 터이지마는 …

大開城建設을

知事에陳情

開城의有志諸氏가

【개성】 지난三일 안정(安井)경기도지사는 좌백(佐伯)내무부장을 대동하고 신임 순시차 개성에 왓는데 당일 개성부내 유지제씨는 도지사를 면회하고 개성부의 발전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진정을하엿는데 …

安城政、經講演會

十四日로延期

【안성지국전화】 기보한바 본사조사부장(調查部長) … 이여성(李如星)씨의 정치경제강연회(政治經濟講演會)는 七일 개최예정이든바 지국사정으로 一주일연기하야 오는十四일(日曜) 오후八시부터 읍내 안청학교(安靑學校)강당에서 개최키로 되엇는데 일반은 만히 래청하야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消息

◇大林福夫氏(昌原郡守) 이번 …

◇金鐘 … 邑內…

集會

◇釜山 …

◇金堤 …

◇大邱 天主敎會에서는 來十一日에 大邱敎會創立 … 週年紀念式을 擧行.

◇釜山 …

密林 (176)

金末峯 作

鄭玄雄 畵

차남(錯亂) 一

… 「어머니 웨그리서요 네?」… 「상만이 사마이」… 「어머니 정신 채리시요」「상만이 아직안왓나? 상만이」…

◇日時 六月十四日(日曜)午後八時
◇場所 安城邑內私立安靑學校
支局設置十五週年記念 經濟講演會
◇演題 現下國際情勢와朝鮮經濟의重要
◇演士 東亞日報社調査部長 李如星氏
主催 東亞日報社安城支局

少年少女 懸賞童話童謠大會
◇時日 六月十三日午後八時
◇場所 淸州公會堂
◇參加資格 十六歲以下의少年少女
◇賞 童話部六名 童謠部八名
主催 淸南學校
後援 東亞日報淸州支局

第二回 大邱花園遊大會
日時 六月七日(午前七時出發) 場所 花園遊覽地 會費 金壹圓(東亞日報來賓自動車와食堂提供함) 餘興

達城郡內十六面 對抗씨름大會
◇賞品 一等五十圓의現金又는壯牛以下五等까지
◇後援 達城郡體育協會

大邱弓術大會
◇賞品 一等以下五等까지
後援 大邱弓道會

수일

主催 本報大邱支局　後援 本報花園分局

地方論壇

學級增設期成會를보고

增川 一記者

보무겟다고 앗이앗다가 해회 길로 向하지못하고 누구를 흘리 빼를아서는 罕[illegible]한어린이들의 期成會를보고 도움이느게 생각하바 가잇엇기에 有志諸位는 其對策을 相議하엿고 其結論이 무릇

學級增設을 實現시키는 可能性도 잇다하엿기에 學級增設期成會를 組織하게 된것이 되엿으리라고 斷言한다。

今年度就學率을 본다면 學齡에 達한兒童數가 增川邑內에만도 二千八十五名이나되는데 不過 一百四十名을 收容하고 그남어지 一千九百餘名인 九割三分은 不得已 家庭에서 放置치안흘수없는 形勢로 되어버리니 耳目을가춘 父兄들로서 어찌 늣기는바가 업섯으며 생각지안흘수가 잇으며 對策을 相議치안흘수가 잇엇으랴?

그리하야 四月부터 學級增設에 積極的活動을 開始하자는 熱이 期成會員은누구를 勿論하고 熱烈하엿을것만은 지난 三月十四日부터 一日接觸하여 일곱은 兩當局의 情況을 보아서도 누구나 넉넉히 짐作할수잇는 明白한 事實이다。

그러면 其結果는 那邊으로 發散이 되엇는지 積極的活動을 開始하겟다든 四月은 이미 다 지나가고 五月도 다지난 이날를 當하에도 不拘하고 期成會의 存在有無를 分別키 難한 狀態에 平하게된 이때에 有志諸位는 어떠한 步調를 取하여 할인지 再考自覺함이 잇기를 바라는바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原바는 이뿐이랴? 아니다! 新年度에 所謂 有志들의 地方發展與會에서는 또 그무엇을 말하엿든고? 無條件賛同의 唯一한 協成 學校維持方策을 一方으로 決定하며 一方으로는 學級增設問題까지 相論한바가 確實이 잇엇다。

그리하야 學院先生들과 生徒들은 그얼마나 기뻐날뛰며 感謝하엿을가? 그러나 그에對한 實行이 果然 잇엇든가?

學年末이라고는 學年들어오고 校舍는없고 배우에 希望인 천만은어린이들를 몰려보내기가 그또한憐憫하엿고 그리하야 어찌할바를 分別치못하고 目前에 先生들은 할수없이 二部制로 敎授하야 午前午後의 二部制로까지 남우아가지고 아침八時부터 午後六時까지 誠心誠力으로 犧牲的努力를하며 無限한 애를쓰고 잇는데도 不拘하고 그對策은커녕 視而不見하고 聽而不聞하고잇으니 有志들의 同情과後援이 잇으리라고만믿고 企待하는 그들로서 그얼마나 落心하엿으랴?

諸賢에 理解가 豊富하고 怜悧하신諸位는 勿論 넉넉이 생각하시는바가 잇으리라고는 확信하나 그對策이 없음은 오직 誠意가 없다는것보다도 各自의 事業에 奔忙함과 무슨事情이 잇음인가 하는 一般 심하야 그러할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남과같이 눈도 잇고 귀도잇는以上 各地에서 中等學校의 設置니、增築이니 每日같이 新聞紙에 特號活字로 報道되는것을 눈으로보기도하고 귀로 듣기도 할것이다。 그런데 우리地方에서는 中等學校는 姑捨하고 旣設되어잇는 初等學校와 私立學院하나 조차도 維持하기에 빼저잇으니 그리小邑도아닌 增川으로서 이어찌 地方的羞恥가 아닐가?보냐。

만히 말치안하도 賢明하신 諸位는 考究하는바가 없지 안켓기에 더말치안코 오직 有志諸氏의 奮發로 圓滿한成果가잇기를 바라며 擱筆하노라。

蓄妾黨에警鐘

妾所生殺害코저 下腹部에'잿물'挿入

◇嫉妬心이 르킨本妻의所行

龜城白石洞서생긴일

【신의주】 평북귀성군(龜城郡) … 본처가 일으키는 … 혜 실해! 평북귀성군동 상면백석동(白石洞) … 相妹)와더러운 關係정숙(朴正淑)(三)을 목적으로감상꽂가 팔 김러나가사이에 양잿물을넣어리를 잘른 박정숙의음부에 너었엇으나 돌아온 정에게 발각당하야목적을 달하지 못하며 어디로인가 도망하엿다가 … 남편되는 평산면용봉동 … 문찬경(文贊京)의집에잡혀왓을 귀성경찰서원에게 잡혓다 그러고 어린애는 약一개월간 치료를 요하리라고。

鰒魚먹고死亡

【영미】 지난 五일 박천군 양가면 … 유대 … 포(浦)어시장에 가서 간하야 건조한 복어를 먹고 三시간가량 고통을 하야 의사의 응급수당을 받엇으나 그만 사망되엇다 한다

新京朝鮮人記者團臨總

【신경】 신경조선인기자단(新京朝鮮人記者團)에서는 지난 三일 오후一시부터 남지 조선중앙지국(朝鮮中央支局) 사무소에서 제四회임시총회(臨時總會)를 개최하고 위원장 이계백(李啓白)씨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신입회원 수리와 기타 사항을 토의하고 동 三시에 폐회하엿다는데 새로 입회한 회원은 이흥운(李興雲) 장현근(張鉉瑾)양씨이고 참석한 단원과 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다。

金世烈 滿鮮(滿鮮) 李啓白 李興雲(中央) 崔衛宇 張鉉瑾 宋明培(東亞)

討議事項

一、記者團員은 今後相互間 緊密한 聯絡을 取할것

一、治外法權撤廢後 在滿朝鮮人問題座談會開催에 對한件

街頭自動車慘禍

今年中에만七十六名

◇死傷者數가 작고 激增◇

【평양】 최근 빈번한 자동차교통사고에 대하야 평남도보안과에서 조사한 三년간의 통계는 실로 놀랄만한 수짜를 보이고잇다。

소화八년도에는 사고발생건수 一백四十二건에 사망자 十명、부상 一백十八명、동九년도에는 사고발생건수 一백七十七건으로 사망자 十九명、부상자 一백十二명 그리고 동十년도에는 발생건수 一백六十九건에 사망자 十一명、부상자 一백二十八명이다。

작년도는 약간 교통사고의 감소를 보이고 잇으나 금十一년도에 들어 一월이래 五월말현재 사고발생수는 七十三건 부상 三十一명、사망자 十五명에 달한다。

이리하야 평남도당국에서는 앞으로 더욱 엄중한 취체를 행할터이라 한다。

北國新綠은부른다 (於朱乙半月亭)

港都元山에 米價大暴騰

一石에二圓以上昂騰

一般細民層大恐慌

【원산】 항도 원산은 元山은 이즘 여름이면 주가적으로 찾어오는 생활고가 일반 세민들 살기에 가장 위한 一곤개한데 돌발적으로 쌀값이 앙등에 대앙등을 가하야 一、二、三등을 물론하고 백미(白米)가 매석 二원씩 폭등되엇다고 한다。

이리하야 일반 봉급생활자와 중소상공층에서는 一대 타격을 받는 중이라고 한다。

漢城丸에火災

損害一萬五千圓

【신의주】 四일 오전四시 四十분경 평북 용암포(龍岩浦)와 신의주 양항간의 판내경계인 압록강우에 정박중이든 조선우선주식회사 소유의 한성환(漢城丸) (二천一백九十五톤) 창고에서는 돌연 불이 일어나 걷잡을 사이없이 하물에불이 단겨 며루 二천五백가마니 소두二백포대 작잠사(作蠶)八十개를 밤소하야 손해 약 一만五천원어치를 보고 동(六시四十分에) 진화되엇다。

"터널"지나다轢死

【신의주】 三일 오후四시반경 평북 염변군 북신현면 향동(享洞) 北新峴面 杏洞) 十三 김하성(金鶴亭)의처 김재령(金在令)(七)은 만포선 묘향산(妙香山)역과 북신현역사이에 잇는 공수(屏谷)"터널"안을 불의에 지내가다가 마침 통하든 열차에 치어 무참히 숙고 말엇다。

男便歸鄕消息듣고 病中아해自殺

【원산】 지난四일 오후 二시경 원산부 북촌동(元山府北村洞)에 입원환자 대동의원(大東醫院)에 입원중인 안희숙(安喜淑)(二)은 예리한 면도(面刀)로 목을질러 자살을하엿는데 그의이면에는 인생에 애닯운 비극一막이 잇엇다고한다。

함남함주하면의회 영흥군영흥(永興郡永興)면에 여자로 자살하엿 여 지금부터 수三년전에 남편이 가세가 극난하야 만주(滿洲)방면에 돈벌리를 떠낫는

至誠껏먹인藥 中毒되어死亡

사체한대 상을먹여!

元山에無知가나은悲劇

【원산】 약초는 인생의 약은 인생의작란!병들어 신음하는남편을 속히낫도록 하겟다고 지성으로써 먹인약이죽엄의 약이될줄이야 누가생각하엿으랴! 원산(元山)에 무지가빗어낸 전말한번식!

원산부영정(元山府榮町) 一동거리(二七)에서 투기상(투機商) 고영계(高永桂)(三)이는 약 一주일전에 먹은듯이 체하야 몹시고민하는것을 그의안해가 몹시 지안은 약평을사(藥局)의 정초를 사다가 약이되어 더욱고민하게되자 주시 구세병원(救世病院)에입원가료하엿으나 연이나 약의 효과가 무이하야 사망하엿다는데 그는사이에서 작았든 의 소생 아이엇다고 그 가게신뢰 한 사모(死亡한데) 三에 쓰는 그시 어 사망엿는대 그는 원산에서 신망잇는 근실한청년이엇다고

農村青年離鄕防止策으로 敎育的娛樂機關設置

明朗咸南의農村建設目標로

◇道當局에서立案中

【함흥】 현대의 문화적 모든기관이 도회로만 집중시설되는 통에 농촌의부용계나과 유위청년은 도회로 도회로 몰려가 오는날의 농촌은 어데를 불론하고 농촌진흥과 자력갱생의 적극적운동이 부진한가하야 더하여가고 잇는 경향에 피폐하여가고 잇는 의외로 농촌청년들이 도회로 몽불가하야 농촌을 떠나 가는것이므로 그들을 농촌에 머물게하고 그이거니와 학교를 떠나 학교을 졸업한 농촌청년 이로하여금 한인의 농촌 자치 로 활동하게하는 것이 갱생운동이 결과 없을 것이라 하야 최근 교육적인 농촌 오락기관의 설치를 새로하고저 한다고 한다。

최근에 나타나는 경향만으로도 확실히 농촌청년들이 도회를 동경하야 농촌을 떠나 가는것이므로 그들을 농촌에 머물게하고 그들에 이를 점차 타개하고저 하야 당국에서는 그들을 교육적 오락기관의 설치를 통하게 하고저 한다는 바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명년도부터는 적당한 곳에 농촌에 한하야 이 기관을 설치하야 명일의 빛나는 함남농촌을 건설하게 할터이라고 한다。

林野內耕作地 火田民이利用

咸北道에서十五年計劃으로 自治的活動을目標

【나남】 함북도 당국에서는 소화七년부터 二十一년까지 十五개년간 五백九十八만 六백四十四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으로 삼림보호를 목적으로 임야내에잇는 경작지를 이용하야 화전민(火田民)에게 농사지도를 계획하고 소화七년 九월에 무산군 삼사면 연암도구(茂山郡三社面延岩洞)에 산농지 사면내의 국유임야 一千二百二十三정보내에 잇는 화전면적 七十六정을 화전민九十一호에 경작시켜 오든바 금년도에는 무산(茂山)과 四시경(四芝洞)에는 산농지도를 一개소 증설하기로 결정하고 그도비에 주력한다는바 그 계획내용을 본다면 제一은화전민의 농경작법(農耕作法)개신과 제二는 자급비료의 증산장려 하는 동시 공려조합(共勵組合)을 조직하야 화전민으로 상여금 나 의 현상을 촉진하는 방책이라고 한다。

鎭南浦酒造稅 十九萬餘圓

식수로는 一만三천이시

昨年度稅務署調査

【진남포】 진남포 세무서(鎭南浦稅務署)관내에서 지난 소화十년도 주조세와 주조석수를 조사한바에 의하면 주조석수는 一만二천一백二十七석、주조세는 十九만二천一백十一원이라고 한다는바 그종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고 한다。

△淸酒釀造石數 五百四十六石 酒造稅 一萬七千八百二十圓

△藥酒釀造石數 二百四十石 酒造稅 七百九十二圓

△燒酒釀造石數 一萬一千五百七十二石 酒造稅十七萬三千五百九十九圓

豐川金組員負債 每人當十五圓

【풍천】 황해도 풍천금융조합(豐川金融組合)의 지난三월말 현재의 조합원의 채무액은 소화九년도 보다도 더 늘어가는 형편이라는데 현재로는 매인당 十五원二十九전이라는바 조사한 통계를 九년도분과 비교하야 보면 아래와 같다。

面別	組合員數	債務額
豐海面	[illegible]	[illegible]
雲遊面	[illegible]	[illegible]
上里面	[illegible]	[illegible]
下里面	[illegible]	[illegible]
東湖面	[illegible]	[illegible]
眞風面	[illegible]	[illegible]
計六個面	[illegible]	[illegible]

每人當 十二圓九十錢六厘

昭和十一年三月末現在

面別	組合員數	債務額
豐海面	[illegible]	[illegible]
雲遊面	[illegible]	[illegible]
上里面	[illegible]	[illegible]
下里面	[illegible]	[illegible]
東湖面	[illegible]	[illegible]
眞風面	[illegible]	[illegible]
計七個面	[illegible]	[illegible]

每人當 十五圓二十九錢

昭和十年三月末現在

寧邊崇德校恩人 文氏送別會

【영변】 영변 사립숭덕학교(寧邊私立崇德學校) 설립자로 현재 평양에 거주하는 예수교선교사 미국인 문요한(文約翰)씨는 금년 이 안식년이므로 오는 十七일로

農地令無視코 作權無理剝奪

五三건중 지주횡포 五二건

高原小作爭議激化

【고원】 농지령(農地令)도 오 명관언이라는 태도로 악덕지주의 횡포는 날로 자심하야 연부년 격증의 추세를 보이는것이 고원(高原)의 현상이라고한다。

동군에잇어 작년一월이후 五월까지의 소작쟁의건수는 소작위인 회판정청구가 五건 조정신청건수가 四건 군소작계원 회해조정이 四十四건 합계 五十四건인데 작년중 동기에 비하야 九건이 증가되엇다고한다。

그런데 쟁의의 원인은 토지매매관계로 신지주가전작인의 소작권을 인정치 안는데서 발단된것이 二十八건 또는 소작인 관리탈중보 혹은 소작료관리자의 무리한 채봉에서 생긴것이 二十五건이라고한다。

그리고 쟁의의 결과에 잇어서는 五十三건중 지주의 패소가 五十一건인데 이것으로보아 지주들의 무리한 횡포가 얼마나한 농촌사회를 앞을 입으키는것을 알수잇다 한다。

市場移轉問題로 市街地商人蹶起

【재령】 문제가 되어 잇는 재령시장노점(載寧市場路店)이전문제로 인하야 시가지주민 수백명은 불안과공포에 싸여 잇다함은 기보와같거니와 지난 四일 시가지주민대표三十명은 또 다시 군당국을 방문하고 진정한 사실이 잇다 한다。

이제 그 사건의 내용은 현재 소위신탄시장으로 인가가 되엇다고 하는 측후부근에는 무인가하나라 방천밧과 시장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해가지고 가옥을 철폐하며 대화장을 사율 하고 잇는 이때에 노점이전은 부담분만 아니라 시가지상민들의 사활문제라 하야 집단시장 인가취소를 해달라고 전기와 같이 진정하는 동시에 집단시장 부근에 모면직원이 토지를 매수해 가지고 잇으니 기개면직원의 책동이라 하며 분개하는 동시에 장래가 매우 주목된다 하며 당국에 대한 비난이 높다 한다。

그 사이에 안이 수은 그것을 너부 비관하고 번리간남편의 안위를 라고민하든남이 정신예이상이 생기어 여러가지로 치료타가 필경 기 대동의원에 입원하여 잇는데 얼마 전에 자식을 이끌고 다로 애서 남편은 … 갓든남편이 수일내로 도라온다는 소시이 왓는데 이소식을받고 오히려 반가우면서도 그와 같이 아 패인이된 자신을 비관하고 그와같이 자살을 도모한것이라고 한다。

鑛業平南의生産 十年度에千百萬圓

九年度보다三백八만원증가

鑛區面積五億五千萬坪

【평양】 평산조선의 호화판一 평남도내의 산금생산액은 연년증가하는 상태에잇어 작十년도의 평남도내의 총생산액은 실로 一천一백八十四만三천二백七十七원에 달하엿다고 한다。

九년도에 비하면 三백八만七천七백七十九원의 증가인데 광구수 四백九十五구로서 면적 五억四천五백五만五천二백八十六평이라하며 주요생산품은 다음과 같다한다。

▲金 생산액 八十一만八천四백九十九원▲金銀이 三十一만三백五十二원▲砂金이 四十三만二천三백十七원▲金銀鉛 一백五만六천三백四十二원▲金銀銅 一백六十八만五천七백六十二원▲石炭 六백五十一만一백三十一원

啓蒙運動三個年計劃 完成코다시第二期에

宣川文盲者退治方針

남은이가三만四千명으로三개년목표

【선천】 선천군(宣川郡)에서는 계몽운동(啓蒙運動)三개년계획을 완성하고 방금 착착 준비중이라고한다。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듯건대 선천군은 타군에비하야 문맹자수가 적은편이라고하나 작년말 현재를 조사한바에 의하면 남자가 二萬三千四百六十一인 (남자인구의五七%)여자는 二萬八千一百四十四인(여자인구의六八%)합계 五萬一千六百五인으로 총인구의 六割二分이 문맹자라고한다。그중에서 十二세이하와 四十세이상의문맹자 二萬三千六十七인을제한 一萬四千五十[illegible]인의 문맹자에게 一년동안 二百八十八인을목표로 매년 十二월부터 익년三월까지의 농한기를 이용하야가지고 각면(各面)이 주체가되고 향교(鄕校)진흥회(振興會)의 유림계(儒林契)교회신흥회(敎化)를 받아 읍八면 三百四十五부락에 一百六十八개소의 회장(會場)을 두어 一萬二千원의 방대한예산으로 건설한 계획을 세웟다는바 배움에 주린 이땅에서 빛나는 운동이라 하야 일반은 크다란기대를가지고 잇다고한다。

腐朽된定州公普 邑民改築陳情

【신의주】 평북 정주(定州)공

安東縣商業校 七月初開校

우리동포가 세운유一교

異域에빛나는機關

【안동현】 만주사변후 이래 부산아동의 교육기관을 운영하든유지 김호찬(金浩贊)씨는 안동현에 상업학교를 설치코저 기성회를조직하고 분망중이든바 안동현 소화(昭和)대정(大正)양보통학교의 학부형과 유지 동의 협력으로 七월一일부터 개교키로되어 지난一일부터 벌어잇는 신동아판을 수리중이라는데 六월十五일 부터 五十명의 생도를 모집하리라한다

白馬婦人大會執行

【백마】 정의선백마여선교(義州白馬)부인회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부인오가 정들을 이용하야 인수련대회(婦人修鍊大會)를 개최하고저 지난一일의 본부백마지회에 대하야 협의를 수어 연반드 의 의 의 연 로 회의 보 잇 는 당지 보교운동장이라한다。

撫順體育會定總

【무순】 지난 四일 무순조선인체육회(撫順朝鮮人體育會)에서는 제四회정기총회를 당시 무순부처인 … 임원개선 … 회장 … 이 배도 선거 하 개최하엿다고 한다。

慈山面所移轉 中止를陳情

생활사 다서 이라고

【평양】 순천군 자산면 사무소(慈山面事務所)는 현재 반석면에 자산면 사무소를 자산역에서 三리나 떠러저 잇는바 농민 읍에서 二리나 떠러저 잇는 자산역(慈山驛)전으로 이전한다고하야 반주민들은 불평이 자자하야 잇다고 한다。 면사무소를 자산역으로 옮기게되면 읍에서 一반 민들리 떠러저 잇다면 곤 一반주민의 불편이 적지안흔것이며 동시 다로도 음하다 보다 장대하야 기 본 의 사 진 정 하 게 되 엇 다 한 다 。

二百萬圓豫算으로 堤防을築造

三개년안에완료할작정

安東縣舊市街一帶에

【안동현】 안동현(安東縣)주시가 안당강 제방건축공사는 총공비 二백만원으로 三개년 계속으로 건축한다는데 제一년은 대사하하야 평용매사하로 퇴수케하고제三년은 대사하로부터 입북강연안 신시가제방까지지세멘콩크리트를하기로되어 준비중이든바 수일내로착공하리라 하는데 이제방이 준공되면 연안 一천七백三十二미터(米)에 건축하고 제二년은 七도구(七道溝)와 八도구(八道溝)와 대사하(大沙河)간의 六백二十미와 연안에사는 빈민에게는 수재의피해를 면하리라하야 一반주민의 사활문제인 원보산(元寶山)에 굴二개를 굴착하야 一반은기대하고 잇다한다。

鎭南浦圖書館의 五月中閱覽者

【진남포】 지난五월진남포도서관(鎭南浦圖書館)의 열람자는 五백三인인데 이것을 열람서적을 구별하면 문학二백三十四、잡지七백一、교육一백十一인바 근일에 이르러 그열람자가 점차로 감소되는 감이잇으므로 전기도서관에서는 개관시간을 연장시켜 지난 一일부터는 밤十시까지 개관한다는데 만히 이용하여주기를 바란다고한다。

新安州體育會定總

【신안주】 신안주체육회(新安州體育會)정기총회는 지난 四일오후八시경 당지 김화정(金化鼎)

平壤의兩集會

【평양】 조선감리회(朝鮮監理會) 평양지방회는 오는 七일까지(十日부터)오후三시에 부내 남산현예배당(南山峴禮拜堂)안에서 각교회인 사이 주일학교지방대회를 개최한다고한다。

평양사범학교(平壤師範學校)교우회에서는 六일오후一시부터 평남도 공회당에서 제四회음악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로 개최되어 소년군조직에 관한 건과 임원개선건이 끝난후 오후七시경에 무사히 폐회되엇다는데 회장에는 서상용씨가 피선되엇다한다。

…씨방에서 서상룡(徐相龍)씨 사회 소래게하라하야 지난四일 오영순(吳榮順)씨외五명이 평남도당국에 동면사무소이전중지를 진정한바잇다 한다。

立보통학교는 창립이래 三十년을 경과하야 현재교사는 거이썩어저 현재 一천五백명의 아동을 수용하기에는 위험하여짓으며 시가미一계 관상에도 개축찰 필요가 잇으므로 수일전 읍민대표가 도지사에게 개축진정을 한바 잇엇다。

消息

◎崔鼎東氏(鎭南浦府協議會員)本月二十日來平

◎李陽鎬氏 …

◎申弼鎬氏(三水郡守)新任人事次來訪

◎尹錫鉉氏(新任三水文廟來訪) 五月三十日本社三水支局來訪

貧弱한元山上水道 五十五萬圓으로大擴張

五만이에게 급수가능토록시설

多年食水恐慌도解消?

【원산】 시설의 빈약으로 인한 원산상수도 元山上水道는 최근 수원지의 급수능력이 한정되어 주간나시 간은 단수시키어 도시면은 고가 시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가 일대문제가 되어잇다한은 연일보도하는바이거니와 이에대하 야 부당국에서는 대책에 부심중이든바 화분업 만원으로 동의 약간 五十만원의 국고보조와 도당에서도 五十五만원의 금년도에 자부해 증여해를 시수여하도록 설계수립에 착수하엿다는데 부당국에서도 어떠 한 예산이 없어 내년안으로 실현시길 예정이라 하는데 이와같이되면 여러해동안 최급한 식수공황에서 해방될것은 물론 원산인이 중기에 보는 현안에서 여기에 분 이 분 원에 … 이와도 기는 원산의 기 외 위 … 든 안 다 한다。

愛兒一男비리고 夫婦가다러나

【평양】 부내 본정(本町) 통정수인(通井) 치과의원의 식모로잇든 부내신리(新里)강성문(康成文)외안해는 약一개월전에 집세를 내지못하야 쫓김을받어 어린아이 물을 걷거리에버린후 부부가 어데로다라나고말엇이 五일아츰 평양서에 알게되어 원가 입 원 어 원 김 … 고 (三)과동생 연순(延淳)(八)은 방금 평양서에서 보호하고잇는바 모든 경생원(更生園)에 위탁할수밖에 없다한다。

佛像破毀코暴行

酒食强要不請으로

名刹釋王寺成雲庵에서

安邊署十五名檢擧

【안변】 지난달 廿八일 오후九시경 북조선의 대찰(大刹) 안변군 위익면(安邊郡衛益面)소재 석왕사(釋王寺)의압자 성운암(成雲庵)에 부근청년 十五명이 나타나서 승려들에게 주식(酒食)을 강요한 일이 잇엇든바 승려들은 사실경내이 사찰임 시행된 이후에서 성지(聖地)에서 절대로 주식을 먹게할수는 없다고 하엿으나 청년들은 이에 격분하야 동암 자내의 불상(佛像)을 파괴하고 또한 폭행을 가한일이 잇엇다 한다。

그러나 동청간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잇엇으나 지난 四일 안변경찰서에서 이를 탐지하고 즉시 서원이 출동하야 동일 폭행을 가한 청년 十五명을 모조리 검거하야 목하 안변서에서 엄중취조중이라고 한다。

高原貯藏租 十五萬斤解除

【고원】 지난 四일 고원(高原)군에서는 저장조(貯藏租)二천七백五十표 十五만근가량의것을 해제하야 각리(各里)로 배부하엿다고한다

沐浴갓다가 十歲兒溺死

【통창포】 함북도 일한군 안변…

信消

新京 市內에서는 龍井學校를 모여 … 大團圓

平壤 朝鮮人 … 大會를 開催한 다고。

天津 去三十一日 俳優界 … 朝鮮人會主催로 野遊會를 開催한바 大盛況을 일우엇다고。

南原 陰五月 五、六兩日間에 열리는 端午節 競技大會에 …

三水 邑內 仲坪里 鳥嶺子 …는 三水江에 들고 …을 마치고 잡는고기국을 끄리다 치마에 불이 붙어 燒死。

咸興 去四日 咸興署에서는 … 本町 … 을 犯하고 …중。

設問中止

自六月八日 至六月十四日

不得已로 中止합니다。 이동안에 보내주신 答案은 無效로 합니다。 그러나 質問은 如前히 받습니다。 그러고 이동안에 實的制限도 斷行하겟읍니다。 于先 解字·破字·수수꺽기·才談·對句마춤·따위는 一切不應。

小型論壇

▽一行十五字五十行以內 ▽原稿는 東亞日報學藝部로

小成에滿足은禁物

九月山人

"成功과滿足" 어느가지는 서로 不可分離의關係가잇다。 누구나 多年經營하든 事業이 成功의域에까지 到達하엿을때에 맛볼수잇는 "滿足" 이라는 精神의狀態 이것은 一種의 心的快感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 "滿足"의 快感이라는 것을 잇어서는 안된다。 滿足이라는 心的狀態를 한번 맛본 사람에게는 보다더 큰成功과 進步가 업으리라는것이다 더구나 小成에滿足함이야 發展의 禁物이라 아니할수없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의社會에는 不幸하도 이러한 小成의滿足을느끼고 다시더 向上發展을 꾀할줄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만타。 여기서 一一히 그 例를 列擧하지는 안는바이지만 ……

우리는 다 "小成의滿足"을 버리고 보다 더 큰成功이 잇슴을 깨닷고 더 큰 滿足을 다함께 느끼고 싶기자。

應接室

小不平

觀客의不平一束

社主의答辯一括

學生들의조롱

앞으로徹底團束

내거리의素

ガソリン節約 15%乃至20%

新經済氣化器附
フオードV-8トラック
及びバスは

斯界에經濟의新標準을樹立하엿읍니다。 本邦에서는本氣化器를今後フオード トラック エンヂン에標準裝置로삼니다。

今やフオードに勝る經濟的車輛は他にありません

フオード V-8

フオード特約販賣店

平南自動車商會 平壤府濱町五	楠本商店 京城府若草町大通	朝鮮鐵道株式會社自動車販賣所 釜山府榮町一ノ四一
イトウ商會 清津府新岩町大	丸大商會 全州府本町一丁目	咸鏡モーター商會 咸興府朝日町一三大

映畫

六月五日부터 晝夜

春香傳

五卷 三場

二、薔薇紅蓮傳

東洋劇場

【電光一一五四番】

◇メトロ・ゴールドウイン・メーヤー超特作 ロイ・デル・ルース監督作品

踊るブロードウエイ

◇PCL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吾輩は猫である

◇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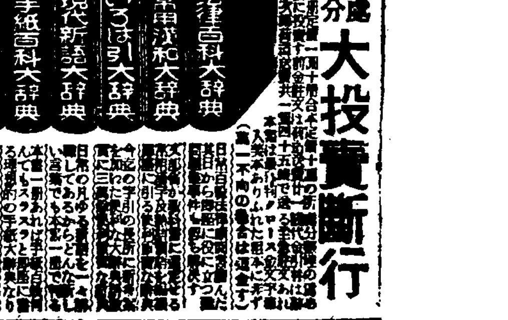
第一回 バード少將南極探險

若草映畫劇場

【電本五二五四番】

◆辭典拾冊合本 タッタの一圓 各冊分は十五錢◆

殘本處分大投賣斷行



特別景品 模範日記 無代進呈

發賣元 大阪市 現代出版社

本報京城販賣所【電光七三〇番】

訃告

室人林氏以宿患本月五日午後四時於振威郡古德面杜陵里自宅別世玆以訃告

昭和十一年六月六日

夫　白雲善

黎明期 (13)

—第二部 都邑篇—

張赫宙 作 / 鄭玄雄 畫

방문자 4

형철은 두어시간 동안 자기 혼자 지껄이듯 이야기를 하다가

「자 이제. 인제 실례하겟서요」

하고 일어섯다.

형철은 종시 아무 말도 [illegible]

(이제야 사내가 저러케두 수접어하나)

안라는 형철의 자태를 머리에 그리며 중얼거리엇다.

[illegible]

「선생님 게시우」

「[illegible] 기두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손을 닦으며 들어와서

「아직 불도 켜지안엇서요?」

하며 전등을 켜고 하엿다. [illegible] 하영이는 [illegible]

「고향 생각은 나지안습니까?」

하영이는 제가슴속에 일어나는 정열을 꾸짓으며 물엇다.

「안요. 아부지두! 저는 여기를 저의 고향이라구 생각고 잇서요」

안라는 상긋이 웃으며

「선생님은 친 오빠 그리구 아버지같이 녀기구 지나면 되잔어요?」

그말에 하영이는 영영 입을 다물지 아니하면 아니되게 되엇다. 하영이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잇슬테지 하고 생각고

「계주일은 어디든 여행을 하는것이 어때요」

하영이는 안라의 안색을 살피며 물엇다.

「여행?」

안라는 하영이를 바라보드니

「나중 그런 기회가 오겟지요」

하고 불안한 얼굴로 말하엿다.

하며 또 손이 찾어왓다.

(오늘은 퍽두 많이들 찾어온다)

안라는 그러케 생각고 밖에나 오니다.

「아이, 난 누구라구.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손을 맞어들이엇다. 거기온 이는 유하영이엇다.

「아직 저녁 전이시요?」

하영이는 미안한듯이 물으며

「난 저녁을 먹엇는데……」

「괜찬아요. 올려 앉어게서요. 곧 죽어가게요」

안라는 하영이를 만날때는 늘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되는것이엇다.

하영이가 방에 들어가서 잡지를 뒤지고 잇을 동안, 안라는 부억에 가서 얼른 저녁을 지엇다.

「선생님두 가치 좀 뜨세요」

안라는 저녁상을 디려노흐며

「같이 앉어서 잡수시겟서요?」

「아니 난 괜찬어요」

하영이는 사양하다 못해 수깔을 들엇다.

[illegible]

'말해 버리자!'

그는 마음에 결심하엿다.

學問的, 社會的으로 본 中國學生의 片貌 (二)

上海에서 金光洲

[illegible]

□…그들의 關心의 動向을

[illegible]

□…學生들의 所謂「學生氣質」

[illegible]

人體의 神秘 — 불을 吐하는 사나이

[illegible]

讀詩餘墨 (1) — 詩人 金時習의 生涯 (下)

趙鏞薰

[illegible]

科學 — 成層圈이야기

無線界의 異變 — 電離層의 異狀에 依한 支障 (六)

都相祿

(九) 電離層과 電波

[illegible]

「사디슴」의 由來

[illegible]

家庭婦人으로서 꼭 읽어야 할 特輯篇

新家庭 六月號

世上에는 이런 一面도 잇다 (實話) ……마리아

笑荒의 運命學 哲學女人을 ……沙雲生

中世紀와 戀愛法廷 ……효민

女子의 合理的體操는 무엇일가 — 몸의 均齊美를 기르자 ……張權

國際情勢 ……高永煥

女性時論 ……黃信德

白夜 (小品 回憶) 교군채꾼는가집애

朝鮮動物傳說童話 (四回) ……林炳哲

六月의 隨筆
- 初夏의 點景 ……張永淑
- 裸身보다 赤足이 더부끄러워 ……李圭鳳
- 六月의 綠葉 ……丁來東
- 對句二三 ……吳基永
- 밤꽃의 禮讚 ……金永義

家庭主婦의 常識欄
- 金利에 對한 常識 ……張七
- 家庭經濟와 家計簿記(二) ……李善浩
- 여러가지 젓담그는법 ……金玉聲
- 紫外線이야기 ……XY生
- 兒童의 榮養食物 ……吉貞姬
- 改良住宅의 一案 ……孫貞圭
- 딸기를 利用한 間食 ……S生
- 빨래이야기 ……朴容姬
- 沐浴과 種類와 그 効能 ……金斗水
- 여름化粧法 ……林亭善
- 初夏의 男兒服製法 ……任貞爀
- 鏡臺襁褓 만드는법 (手藝) ……朴恩順

그림없는 그림책

讀者文藝
- 午後의 海岸風景 ……朴南秀
- 구두마춘의 노래 ……李香葉
- 자장가 ……林然
- 破鏡 (外一篇) ……黃在始
- 小夜曲 (外三篇) ……金德在
- 흘러가는 農夫 ……宋光祚
- 春想數題 ……林湖
- 第二나 어덩갈이여 ……鄭沙泉
- 墟想 ……이상구
- 봄비 ……유제칠
- 春風에 떨리는 글 ……金林湖

食母問題特輯欄
- 子女敎育과 食母問題 ……朴[illegible]
- 食母待遇問題 ……林孝貞
- 朝鮮家庭과 食母問題 ……李貞根
- 아이시켜 아이보임은 위험 ……[illegible]
- 東京에서 본 下女學校 ……[illegible]
- 食母의 눈물겨운 手記 ……[illegible]
- 食母待遇에 關한 設問 ……申瀅淑、金善、許河伯、金尼洙、李璜之、李俊淑、李靑汀、金貞愛、宋今璇、具滋玉、朴晶鸞、方信榮

大患은 무엇을 가르키나 (人生最後의 虛無를 賢明히 感하는가지) ……金王述、鄭賢淑

樂聖의 最後 ……[illegible]

朝鮮兒童의 法的保護論 — 八百三十萬少年少女를 救護하라 — 梁在慶

女學生 페ー지
- 그리운 그 옛날 ……崔小濤
- 殘月 (詩) ……[illegible]
- 失題 (詩) ……[illegible]
- 險路를 차저 (隨筆) ……張正順
- 봄동산파내동생 (童話) ……鄭淸鏡
- 東京간언니에게 (편지) ……李康子

新家庭趣味室 (色刷 八頁)

爆笑漫畫集

連作小說 破鏡 三回

創作小說 [illegible]

誌代 二十錢 (送料二錢)

京城光化門通 發行所 新東亞社 振替京城一四五〇〇

本社後援의中等校 蹴球聯盟戰擧行
來十一日부터徽文球場에서

本社後援의 府內中等學校 蹴球聯盟戰은 六月十一日부터 五日間每日午後四時正刻부터 徽文運動場에서 行할터인데 第一日외十一日(木)외는 午後三時半에 行할터이오 十三日과 十四日은 午後二時半이다. 對戰은 다음과같이 決定되엇다.

十一(木)普成—中央、徽新—徽文
十二(金)普成—徽新、徽文—大東
十三(土)普成—徽文、中央—大東
十五(月)中央—徽新、普成—大東
十六(火)中央—徽文、徽新—大東

音에 새어나온 눈물겨운 美談의 하나

어떤選手는名譽를 微遠하는데 費用關係로 引率者를 보내지못하게된바이 消息을들은 馬山의 尹宗錫氏는 馬山有志로부터 거금 바이니 보태여 應分出을 함에있드시 미루랄 旅費를 보내어달라 眞一에 그래도 不足하면 待機를 하고 있은터이니 빨리 알리라고 하더니 드되어 氏가 見送나왓다가 旅費의 감동보고 自費하야 兩君의 初行의 征途를 함께하엿다. 그리고 또東京에잇는 力敎의 先輩南昇龍氏의 犧牲的 努力도 이번兩君의 活躍에 숨은 美談의 하나이다.

올림픽後援會에 收入一千六百圓

朝鮮올림픽後援會에서는 代表選手의 精神的後援을 하고저記念메지와 手巾을作製하여 全朝鮮에 頒布하엿는데 얼마前에 全部賣盡하야 그利益金一千六百五十圓 十九錢으로서 六日午後一時 後援會 第二會議室에서 應分方法에 對한 打合會를 開催協議한 結果半島出身의孫、南 陸上 二、金 蹴球 各選手에게 旅費로 支給하는外에 日本選手團에 寄贈 中央體育研究所附設各 決定하엿다。

征途中의兩마라손너 하르빈서一泊
◇……七日朝滿洲里로向發

【哈爾濱七日發電】 世界制覇의 큰뜻을 품고 길떠난 우리의 올림픽 마라손選手 孫基禎、南昇龍 兩君을 비롯한 陸上競技選手團 一行은 이번伯林外 마라손選手 一行은 途上 五日 午後九時 하르빈에 到着하엿다。 驛頭에는 本社新京支局員 을 爲始하야 各新聞關係者와 在留同胞多數가 出迎하엿고 當夜滿洲國賓館에서는 選手一行의 健鬪를 祝賀하는 意味에서 歡迎宴을 마련하엿든바 이날 가벼운 運動을 行하엿는데 一行은 모다 元氣자못 旺盛하야 明七日午前 九時三十五分 驛發 列車로 滿洲里를 向하야 出發하엿다。

四平街通過

【四平街支局七日發電】 우리兩選手는 昨六日午後七時十二分驛頭에 十四分後北行하엿는데 驛頭에는 이우리兩選手를 爲하야 盛大히 歡送하엿다。

本社旗빨아래 健鬪를祝福

【新京支局電話】 우리新京에는 [illegible]

會勢强化에邁進
女子體育奬勵會定總열고 事業擴張과會員增募

朝鮮女子體育界의向上發展을 圖하야 會員을 널리 募集하야 會의 能力을 强하게하기로 되엇다 이리하야 적어도 今年中으로 全鮮女子中等以上學校 體育擔任先生과 其他女子體育家를 全部 入會를 勸誘하기로 되엇다

그리고 理事會를 이어서 열고 [illegible] 하기로 하고 年會費는 一圓五十錢이든것을 一圓으로 주리엇다。

'ᄒ힘의朝鮮'凱旋한 兩力士歡迎會
◇昨夜太西館에열리어

力技朝鮮의 어석을 世界에 떨치고 빛나는 選手權을 걸어 가지고 凱旋한 金容植、金容鎭 兩選手의 歡迎宴은 朝鮮力技研究所主催로 六日午後七時 太西館에서 力道 三十名이 參席하엿다。 [illegible]

力技界美談
李、南兩氏의盡力

別項과 力技選手歡迎會席上에서 十年을 머다안하고 하로와 같이 무수히 奮鬪努力하야 內外적으로 進出하야 오늘을 빛나게에잇어서 感慨無量하다는 中大體育[illegible] 徐相天氏의 意味深長한 讚辭[illegible]

産業

軍需工業動向과 世界鐵鋼業展望
〔三〕 李 致 鐘

戰爭을 遂行키爲하야도 軍備는 必要한것이니 武裝不利가 된것이며 一旦戰爭이일어난때에 局勢는 殆危될것은 明白必要도 없으므로 軍需工業은 發展하지안을수 없다 그發展手段은여러가지가잇거니와 火藥의 爆發力이 戰場에 利用되므로부터 軍隊編成에 一大革新이 生하는同時에 兵器의增加、軍需品을 增加시키며 軍需品의增加는 兵員增加를 誘致하야 맛츰내는 從來의 無秩制한 手工業的小工業은 所用없이되고 社會形態를 背景으로한 資本主義的 大規模의 軍需工業이 造成되고만것이다 十六世紀로부터 十八世紀까지 英國의 火砲製造中心으로한 鐵工業의 發達과 佛蘭西의兵器工業과 獨乙、伊太利의 兵器製造 工業의 發達이 그것이다。

鐵、鋼、鉛、銅等各種金屬工業、製藥製造에關한工業、綜合工業인造船業等은 國防上 絶對必要한軍需工業으로서 이와같이 軍需品을 外國에依存할수 없음으로 列强은軍需工業의 國家統制化에 全力을다하고잇다 日本은日淸、日露의 二大戰爭을 契機로顯著히 發展되엇으며 多少의外國品을쓰든것도 大戰以後 新興工業에依하야 大部分을 國內에서產出하고잇다。

이와가치 軍需工業을助長 하기爲하야 列强國은 關稅를引上하고 補助金을交付하며 企業에 許可制度를쓰며 國家가干與도하며 直接國家가 經營도하게 되엇다。

列强諸國은 新兵器의 發明、研究乃至應用에軍事費의 科學化를圖하며 努力과犧牲을 앗기지안으니 軍備費의 膨脹은 不可避의 事實이다。

列國의軍事費를보면

	一九三四年	一九三五年
日本	九四八	一〇三三
米國	三六七〇	一〇六二

〔單位百萬圓〕

英國 一〇〇六 一六八五
佛蘭西 一八三五 一三三三
伊太利 九〇三 九五〇八

外國貨는 爲替市勢에依하여 日貨로 換算한것

이와같이 膨脹된 軍事費는 科學的施設과 器械裝置의 國産部門에 多額이 支出되며 이것이缺陷된 軍除는 以後科學的戰爭에 何等의所用이없을것이다。

따라서 이莫大한軍事費는 必然的으로 軍需工業部門을 刺戟하여 그繁榮을 招來하며 兵器類의 貿易을 旺盛하야 軍需工業에 만흔 業績을 모르고 지나게되엇다。

戰時에이와같이 重大한 軍需品을 國外에求하는것은 危險함이 더러 事實上不可能한것이므로 軍需工業은 原則的으로 國家工業이라야만하다。 卽原料、資材의供給으로부터 技術、勞力、資本에 이르기까지 生産의全過程을 自己國家版圖內에서 解決할려고 하는것이다。

그럼으로 軍需工業을 國營化하

産業俱樂部

質問은 葉書一枚一問 簡單하게、要領잇게

朝鮮말로모르는 藥草名의解說

〔問〕 左記藥草를 鮮語하라 하엽는데 日本內地俗稱은 아오나鮮漢方名과 又는俗名을 불으오니 香下敎하야 주시오

日本內地名
一、公孫樹(イチヤウ)
二、朝刀股(チシバリ)
三、蒙翦虎耳草(ユキノシタ)
四、小連草(オトギリソウ)
五、ハコベ
六、茜(アカネ又는一名ツルア)
七、白頭翁(ヲキナグサ)
八、杜松實
九、千屈菜
十、錦熟黃楊
十一、織草(オミナヘシ)
十二、蘘草(ジウヤク)

〔答〕 一、公孫樹은 은행나무(銀杏)或은 白果라고도합니다。
二、朝刀股(チシバリ)漢方名은 없으며 朝鮮名은 「씀바귀」이라합니다。
三、蒙翦虎耳草 蒙翦는日本名으로 ハコベ 朝鮮名으로 「범의귀」이라합니다。 虎耳草는 日本名으로 ユキノシタ 朝鮮名으로 「범의귀」이올시다。 그러나漢方名은없읍니다。
四、小連草 或은小連翹는 日本名으로 オトギリサウ 이라부르나
五、ハコベ은 漢方名없고 朝鮮名은 「별꽃」이라고 부르나이다
六、茜草는 アカネ인데 朝鮮名으로 「꼭두선이」이라고 부르나이다。
七、白頭翁은 漢方名없고 朝鮮名은 할미꽃 或은 「노고초」이라고 부르나 地方에따라 「할미씨까리」라하야 「가치다리」이라고 부른다 日本名은 クサノワウ、
八、杜松實은 老鼠子 卽 「노간주나무」의果實이다、日本名으로 ネズ 或은 ネズミサシ、
九、千屈菜는 日本名 ミソハギ인데 漢方名은없고 朝鮮名은 「부처꽃」卽 佛花이라합니다。
十、錦熟黃楊이란植物은없읍니다
十一、敗草는 吉草인데漢方名은 없고 朝鮮名은「마타리」日本名으로 ヲミナヘシ 이올시다。
十二、ジウヤク은 蕺草이며 藥草은아닙니다 日本名으로 ドクダミ 이라하야 民間에서 만이使用하나 朝鮮名 又는漢方名은 없읍니다。

朝鮮에서는初有의 家畜保險制創定
農林局立案에着手

며 或은補助金주는等 여러가지形式을取하지안는다。

大戰結果 參戰國의 財政經濟에 極度로 疲弊를招來한것은 말할것도없거니와 交通의 杜絶으로 因하야 後進工業國은 自給自足하지안으면 안되게되엇고 大戰에參加하지안은 國家는 參戰國에 軍需品을 輸出하게된結果 生産機構가 膨脹되엇으며 大戰終了後 事實上後進工業은 先進工業國인 英、獨의 販賣市場으로부터 離脫하게되엇다。

日本과같은것이 그適例이며 이와같은 國家에서는 大戰中에發達된 自國의生産事業을 保護하기爲하여 關稅障壁을쌓고 先進工業國은 市場을確保하기爲하야 保護政策을쓰기始作하엿으니 產業의 合理化運動은 生産過剩과 失業者를만이내고 生産及市場의 對立化는 드디어 經濟圈을造成하엿다 蘇聯은 利나 蘇聯이 經濟體制을 必要하지안을것은 廣大한 自國領土로부터 能히自給自足할수잇는 까닭이다。

그럼으로 植民地와 本國과의經濟勢力이나 親交關係의 經濟勢力이다

나 그中德은대部分이 軍需工業이다 國家의形態에따라 程度와 種類는相異하되 軍需工業의 特異性에 依하야 各國이國營化할려고하나 하軍需品의範圍가 汎博하야 大量은 今日에 現在經濟機構下에서는 到底히 全部를 國營할수없는形便이다 國防上或은 產業上 그重要性의 如何에따라 民間經營에 一任하는 것과 國家統制下에 經營하는것과 直接國家가 經營하는것의 三種類로 區分할수잇다。

日本內地에서는 昭和四年九月부터 家畜保險法이實施되어 家畜의飼育、畜及과有畜農業의 進展上에 顯著한效果를 擧하고잇는데 朝鮮은 牛의百六十萬頭를 筆頭로 豚等도 普及한 畜產地帶임에 不拘코 이의保險制度가 아직도 實施되지안엇음으로 家畜衛生上 遺憾으로역이든바 最近 家畜保險方面에서 이의實施를 要望하고 더우기金融組合聯合會는 家畜金融의 見地에서 家畜의 共濟保險制度設定에 關하야 農林局에對해서 要望하고잇으므로 農林局도 이의立案에着手하기로되엇는데 家畜保險制度가 公布되면 家畜의斃死其他에 依한損失에對해서 共濟가確定되고 따라서 金融擔保性도 增大할터로 期待된다

朝農의硫安은 市價以下配給
▼……配給價格決定

外에에는 有畜農業의普及에 大光明을 줄것으로 期待된다

朝鮮農會 配給의 金肥購入價格은 일직이 市況을考慮하야 朝農과農林局에서 協議中이드니 如左히 決定하엿다

硫安叭當 三圓五十錢부터 七十錢 四、五、六月物 까지

右市價는 各各地方時勢를 考慮하야 地方時勢보다 割低價格을附한것이며 今年度의 朝農配給은 四萬은 硫安三萬은 計七萬으로로 豫定의 十萬돈에는달치안코나 그 配給價格은 日本內地의 全購聯、朝鮮內의全購聯이 市況에依하야 그럼 그 共同購入이 相當한高價가된것이다

▲對日本內地貿易

總督府發表=五月中의 對內地貿易槪算 如左(單位千圓)

移出	五三、六六二	
移入	五五、二七五	
計	一〇八、九三八	
入超	一、六一一	

로 前年同期에比하면 移出一千九百七十萬圓、移入三百八十萬六千圓의增加를 示하야 入超도 亦是一千五百二十六萬三千圓을 增加하엿다 又 昭和十一年一月以後의累計는

	本年	比前年同期增
移出	二三四、七九九	二七、〇五五
移入	二四三、六六六	三七、九一〇
合計	四七八、四六五	六五、〇六五
入超	八、八六八	一〇、八五五

朝鮮北洋漁船 오리가灣에進出

朝鮮의 北洋漁業進出은 從前所謂리다 大帝灣(포세트灣)、아메리카灣의 近接地帶에限定되엇엇는데 最近漁業技術의 進步에伴하야 更히 北上百三十浬의 오리가灣에 도 出漁船이 增加하는 傾向이잇어 이는 蘇聯의 不當課稅에 進展難에 잇기까닭이며 이에對하야 今次新鐘功의 照國丸等을 先導로 今年度부터 大大的으로 오리가灣一帶까지 進出할豫定이며 朝鮮漁船의 北洋積極的進出에 期待된다

〔仁川〕 仁川六月中貿易

仁川港五月中의貿易額은 如前히 增進을보어

輸出	四〇〇八九四圓	
輸入	一三三〇、二二四	
計	一七二二、〇一八	
移出	六、四一六、一七二	
移入	一〇、三一六、五一九	
計	一六、七三二、六九一	
累計	一八、四五三、七〇九	

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百十二萬四千五百四十二圓의 大增加를 보엿다한다。

石油保有義務의 總督府處置注目

石油業令에依한 朝鮮內 各社石油保有義務制는 六個月間으로 保有設備完成까지 一時的으로 三個月分保有를認定하고 잇는데 今月末로써 그猶豫期間이 終了되고 七月부터는 六月分保有가 實行되게되엇고 그리고 內地側은 거의 保有設備가 完成되어잇는때 朝鮮側은 未完了로 果然業令에依한 總督府의要求가 履行될것인가 原因이되고 履行되지안는時는 總督府는 이에 對하야 如何한 處置를 할것인가 日本內地에서도 問題일것이 아직 分明하지안어 그 進行이注目된다

鰮油脂聯合會 殖銀資金借入
一百四十三萬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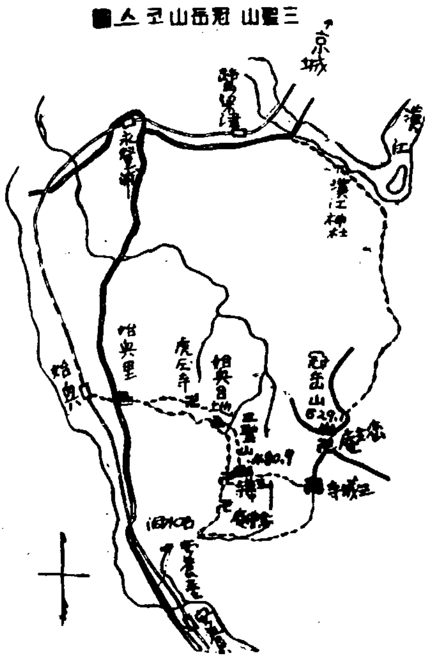
鰮油脂聯合會에서는 事業資金으로 殖銀에서 合計一百四十三萬圓을 借入키로하엿는데 內容은 左와如하다

一、原料購入資金　一百萬圓
一、共同購入資金　三十萬圓
一、一時借入金　三萬圓
一、荷爲替引受準備金　十萬圓

地方産業雜信

▲新幕 京義線 新幕에서는 昨昨年四月에 組合員百名이 每個月三十錢씩 出資하여 六個年豫定으로 每人當 豚一頭씩 配給할 目的으로 組織한後 지난昨年四月八日에 第二回定時總會를 開催하고 產業報告한바에依하면 昨年中것이 三十五頭로서 此所謂 以小成大에 好成績으로서 農村經濟에크게助力이되리라하며 그期의役員은 如左하다고。

理事長 [illegible] 副理事長 [illegible] 理事五人 財務監事 書記 二人 幹事十人



京城近郊篇 ⑤
北漢山코스

北漢山은 京城의 北쪽 郡城의外郭을 에워싸고 있는 一名三角山이다。 그最高峯을 白雲臺(八三六米)로서 仁壽峯、萬景臺와함께 奇觀으로 乾立하야 四方에 고 지를 헤처서 天然의 城郭이 되어잇다。

이最高峯 白雲臺에 올으는 것은 倉洞驛에서 南으로하야 城郭을 따로 京城市街에 내려오는 코스가 時間的으로나 또는 하이크의 價値에잇어서도 第一이라고 보겟다。

◇行程 倉洞驛에서 汽車에 내리면 西에보이는 北漢山山脈의 雄壯한 姿態가 하이커를불은다。 牛耳洞까지의 三粁半 코스는平坦하여서 한時間半假量 걸으면牛耳洞 溪流에 이르게된다。 이溪谷을 따라 西으로 山路를 밟으면서 小松에 덥힌 砂尾根을을으면 道詵寺에 이르게된다。

어제부터 길은 오르기에 좁힌 이드다 절의 背後로 通한비탈길를 따라서 올라가서 峨嵋樓를넘어서 조금 내려가다가 다시 羅漢이 만호象한비탈 길을 오르면 조고 만草家가 하나잇다。 이집앞에는 맑은 올물이잇는데

내鄕土의하이킹코―스巡禮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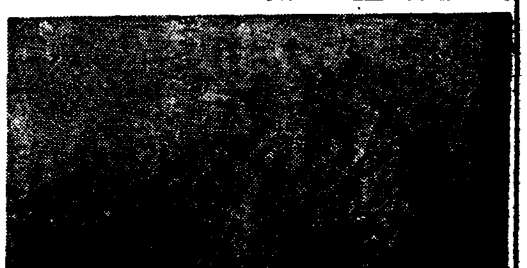
山嶽을 찾음 朝鮮을 부른다!

여기서 말근 목을 축이고 다시 올라 가기를 얼마하면 西門이 나타난다。

白雲臺、仁壽峯、萬景臺等、乳房狀의 岩峯이 여기저기에 乾立하고 잇다。

最高峯 白雲臺에는 岩壁에 박아노은 鐵鎖를 잡고서 約十五分間올라 가면 되는데 여기 올르면 足下에는 群峯이 散在하고 京城市街 仁川港등도 멀리 眼界에 보는景致는 筆舌로는 그릴수없으리만치 아름답다。

내려올때에는 衛門까지 내려와서 西方으로 비탈길을 내려와 萬景臺、露積峯의 稜部에잇는 大成門에 到達하게 되는데 그새는 그리 險하지안는 平坦한山路이나 大成門부터는 城郭을 따라 平倉里에 이르러서 洗劍亭으로 行하거나 平倉里부터 彰義門을 取하야 付岩里에 이르러서 大成門을 지나 얼마가지 안으면 孝子洞에



◇……北漢山의雄姿

釜山近郊篇 ⑥
金井山코스

京釜線 東萊驛을 나서서 北行하기를 約二粁하면 적은언덕에 甘萬城壁가 잇다。 이城은 釜山의 出城으로서 金海平野를 바라보던다。 北側으로부터 나려서 東山街道를 橫斷하고서 約二粁가량가서 華明里곳이처서 右側으로羿羿서 約一時間山腹을 비스듬이한 길을 가면 金井山城의 正門인 西門에 達한다。

金井山城은 築城한年代는 未詳하나 新羅時代에 改築되고 다시李朝三百二十年 肅宗二十九年에 비로소 石壘로 改築된것으로서 周圍約十二粁、高二米의 城壁이 廣尨하며 東萊를싸고돌은 金井山城을 이루어엿다。

古瓦의 殊狀이며 殘壞된가로 곳곳 老門외터등移轉하는것도 興味가깊다。 西門을 나서서 城壁을 끼고서가기를 三十分하면 金井山城에 達한다。 이部落의 背後에 잇는 大國寺의 溫泉이 있는 國淸寺를 거처서 東門으로 方向을 돌린다。 東山은 西門처럼 큰規模는아니지만 堺上에서 四圍가 展望되며 釜山市街、洛東山脈、洛東江의 구비처흐르는곳등 一眸의 아래로 펼처지는 東萊溫泉을 眼下에 보이나 내리가에 約一時間가량 걸린다。 이溫泉에 들러서 땀을씻고서 電車나 뻐스로 釜山市中에 들아온다。

佛蘇蹴球敗退
普專 9 (4-0 5-0) 佛專 0

朝鮮體育會主催第二回全鮮라켓蹴球選手權大會 第二日戰은 六日午後三時五十五分 京城運動場에서 玄正柱(主) 鄭商洙、李有成(副) 三氏審判下에 開幕되어 佛敎軍 長久한 微弱한作戰에 依하야 普專의 敏捷한 [illegible] 하야 陣을어긋지못하고 前半에 四點、後半에 五點을 빼앗기고 結局九對零으로 普專軍이 大勝하엿다。

【普專】
GK 李斗銖　FB 金龍浩 李有成
HB 李東煥 朴元榮 金永吉
FW 崔在起 鄭德和 蔡南明 李應鎬 朴勝基

【佛專】
GK 尹사빈　FB 프텍、시링데
HB 커빈 마이 리 루쉬
FW 리커 벗재 비커

中等校庭球 初日經過
中東코트에서

中央佛敎專門學校 主催의 第二回 全鮮男子中等學校 軟式庭球大會 第一日은 六日午後一時二十分부터 明倫町 中東코트에서 擧行되엇다 開會式에서 主辦者의 會長 桂光淳 氏의 開會辭에 이어 中等公民體育振興의 대한 [illegible] 이 잇은다음 열린 [illegible] 이영던엇다。

○中公—協實×
【第一라운드】
×(金滿鎬 朱在健 2—4 金鳳鎬 梁在鑑)○
○(元渠延 崔武淳 4—1 林相淳 金顯浩)×
【第二라운드】
×(尹永浩 李永配 1—4 徐大淳 鄭東甲)○
【第三라운드】
○(元渠延 崔武淳 4—0 金鳳鎬 梁在鑑)×
○(元渠延 崔武淳 4—0 徐天淳 鄭東甲)×

○養正—中央×
【第一라운드】
○(任元淳 尹泰敏 4—0 吳炳烈 申相甫)×

○徽文—京工×
○(張相元 尹永熙 4—1 林相淳 [illegible])×
○(金成奎 尹元植 4—1 金元植 鄭一圭)×
○普成—京工×
【第一라운드】
○(李昌茂 宋在鉉 4—0 李昌鎬 金相寶)×
○(辛南根 田文秀 4—1 金命午 張午淳)×
○(李聖鎬 吳榮坤 4—1 宋鳳吉 郭炳德)×

○徽文—一高×
【第一라운드】
○(張相學 金漢興 4—0 黃秉淸 尹永徹)×
○(申東鉉 金炳璽 4—0 徐在鎬 崔在權)×
○(李秉學 金榮奎 4—2 李容準 李炳顯)×
×普成—中東○
【第一라운드】
○(方龍德 [illegible] 4—3 朴泰洙 [illegible])×
○(金炳斗 宋在百 4—2 許丁淳 李明來)×
【第二라운드】
×(川口隆男 丁浩鉉 2—4 安方善 申東一)○
【第三라운드】
×(張萬吉 方龍德 0—4 安方善 申東一)○
×(金炳斗 宋在百 3—4 安方善 申東一)○

今日의運動

▼庭球 中等校 大會 第二日 午前九時 中央佛專코트
▼第十一回專門校 리그戰 午前九時 京城運動場
▼陸上 第五回 中等校 學年別大會 午前九時 京城運動場
▼武道 第十一回 專門校 劍道大會 午前九時 光化門通 武德殿
▼校內競技會 第十三回徽文高普(午前九時同校庭)

◇登山코스 [illegible]
一(京城、驛前)
코스=東大門→牛耳洞(三粁五百米、一時間)→道詵寺(二粁五百米、一時間二十分)→白雲臺(十五分)→衛門(十五分)→城壁으로 大成門(四粁六百米、一時間四十分)→孝子洞電車終點(一粁二百米、二十分)
徒步距離=十七粁六百米
所要時間=七時間二十分
費用=汽車賃京城에서 片道三十九錢、淸涼里에서片道十六錢

鑛業權의動靜

[illegible]